통권 142 호

후원회소식

발행일 2003. 8. 15
발행인 권오헌
발행처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미국의 대북전쟁 위협 결사 반대한다!"

▲ '학살군대 주한미군 당장 철수하라!' 스트라이커 부대의 전쟁훈련에 분노한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이 훈련중인 탱크에 올라가 시위를 하고 있다.

◀ 통일연대에서 개최한 전쟁반대 집회 참석자들이 서울 종로에서 시가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 /통일뉴스

· 목 · 차 ·

공동성명서 전국양심수후원회 모임 • 2 / 이달의 시 신현철 출소장기수선생님 • 4 / 특집 I 한총련 미군기지 투쟁 손석춘 • 5 / 이런 회원 -고선주회원을 찾아서 이용준 회원 • 9 / 회원마당 문숙희 '후원회소식' 편집위원 • 12 / 감옥에서 온 편지 김태영 화물연대 • 15 / 옴시롱감시롱 기행 이현근 '후원회소식' 편집위원 • 16 / 산행기 보고 이창희 회원 • 19 / 회원워크샵 보고 주경임 김숙희 회원 • 20 / 특집 II 한반도핵문제에 대한 국제민간법정 • 22 / 나의 삶 나의 일터 정형근 회원 • 24 / 시사만화 • 25 / 이런 일이 있었어요 • 26 / 재정보고 • 35 / 회비납부 • 36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110-542 서울시 종로구 창신2동 592-7 **전화:** 765-5282 **전송:** 745-5604

회원모임방 151-812 서울시 관악구 봉천6동 1690-141 **전화·전송:** 888-4470 **홈페이지:** www.yangsimsu.or.kr

양심수에게 자유를! 정치수배자들에게 해방을!

8 · 15 광복절 양심수 사면을 다시 촉구 한다

국가보안법 없는 세상, 양심수도 정치수배자도 없는 세상은 우리가 오랫동안 추구해온 공동의 목표였다. 그래서 양심수의 뜻을 지지하고 성원하며 석방과 후원을 해오고 있는 양심수후원회 전국모임은 돌아오는 광복절에 양심수 전원석방과 정치수배해제를 촉구하고자 오늘 한자리에 함께 하였다. 이 땅의 민주주의 발전과 민족통일, 사회진보와 민중의 생존권을 위해 양심에 따라 활동한 사람은 분명히 양심수이고 양심수를 구속 탄압하는 행위는 반인권 반문명 행위이기 때문이다.

8·15 광복절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로부터 조국광복과 민족해방을 이루어낸 우리민족 최대의 경축일이다. 주권을 잃고 억압과 착취의 고통으로부터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은 자유와 해방의 영광스러운 날 이기도 하다. 이러한 광복절이기에 역대정권들은 심지어 포악한 군부독재 시대에도 광복절 양심수사면을 해오고 있었다. 이제 다시 민족해방절 58돌을 맞아 지난 4.30 양심수사면에서 부당하게 제외되었던 이석기씨를 비롯한 양심수 전원석방과 한총련 관련 정치수배자 등 모든 수배자들의 조건 없는 수배해제 조치를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양심수는 처음부터 구속되어서는 안될 사람들이었다. 개인이나 소수이익이 아니라 공동선을 위해 불이익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양심에 따라 확신을 갖고 활동하다 구속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오늘 구속돼 있는 양심수들은 반인권, 반민주, 반통일 악법인 국가보안법과 집시법 잘못된 노동 관련법 등으로 통일운동, 노동운동, 사회운동을 하다 구속된 이 땅의 양심들이다. 헌법이 보장하고 세계인권선언이나 국제인권규약에서 규정한 기본인권을 무참하게 짓밟히고 있는 사람들이다. 공안당국은 국가안전과 사회질서를 위해 이러한 기본권 일부를 제한 한다고 하지만, 어떠한 이유로도 인간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양심수가 구속되어서는 안되는 이유이다. 양심수는 파렴치범이 아니고 권력형 부정비리의 범죄자가 아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정당했고 법정에서도 의연하였다. 양심수 이석기 석방을 위한 도보순례단이 청와대 앞 도보순례 등 2000km를 넘게 석방촉구 시위를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는 지난 4.30 양심수 사면에서 부당하게 제외되었던 이석기씨를 비롯하여 김형주 10기 한총련 의장 등 기결양심수는 물론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철도노조 화물연대 등 정당한 파업권을 행사했던 노동자들과 생존권과 주거권을 지키기 위해 활동하다 구속되는 등 8월 4일 현재 구속된 102명 양심수 모두를 조건없이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사회를 말하면서 양심수를 가둬두고 있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대학생들이 자신들의 민주적 절차에 따라 결성한 자주적, 학생 대중조직을 이적단체로 몰아 탄압하는 것 또한 반민주, 반인권 폭거이다. 애국청년학생들을 칭찬은 못할망정 터무니없게 이적단체로 규정 학생회 간부로 뽑혔다는 이유만으로 구속하거나 길게는 7년이 넘게 정치수배로 쫓고 있는 현실 또한 반문명적 야만 행위이다.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는데 악용된 국가보안법은 6.15 남북공동선언 시대 더 이상 존립명분이 없어 졌다. 또한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선고에서 실형률은 2%를 넘지 않고 있으며 한총련 대의원들은 거의 100% 집행유예로 석방되고 있다. 더 이상 한총련 관련 청치수배자를 검거,

압박 하는 행위가 부당함을 말해 주고 있다.

지난 7월 25일 대검 공안부는 한총련 관련 정치수배자와 11기 한총련에 대한 수사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총련 대의원 등으로 수배 내사 중인 152명 가운데 79명만을 불구속 수사를 통해 수배해제를 하겠다는 선별해제 의지를 밝혔고, 11기 한총련도 여전히 이적성에 변화가 없다고 판단한다면서, 다만 한총련 대의원에 대한 일괄수배조치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한총련에 대한 시각은 일부 전향적인 면이 있지만 여전히 냉전시각의 고정관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사상, 양심의 자유와 집회 ·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통일 반인권 행위로써 한총련에 대한 시대역행적인 탄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광복절 양심수 사면과 함께 한총련 정치수배자 152명을 전원 수배해제 해야 한다. 또한 차수련 보건의료노조위원장과 홍순석 한청 부회장 여중생 범대위 집행부간부들에 대한 수배와 체포영장도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또한 민족의 화해와 협력 자주통일을 위해 경제인으로 오랫동안 헌신해오던 정몽헌 회장의 투신자살에 충격을 받고 있다. 민족통일을 향한 노력을 냉전의 올가미에 쐬워 죽인 '분단타살' 이란 평이 있듯이 정회장의 죽음은 미국에서 정보제공을 했고, 수구냉전세력이 남북 사이의 화해협력을 방해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른바 대북송금특검법 진행과 무관치 않다. 이제라도 특검법에 따른 6.15 공동선언을 훼손하는 사법 재단을 중단하고 관련자에 대한 공소를 취하하고 구속자는 즉각 석방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전쟁의 참혹함을 보아오면서 반전평화운동이 그 어떠한 인권 운동에 뒤지지 않는다고 믿는다. 오늘 조국 반도에 드리우고 있는 전쟁위협이 가중되고있는 조건에서 반전평화 운동은 더욱 절실함을 인정한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구속을 반대하고 대체 복무제 도입을 촉구하면서 최준호씨를 비롯한 양심적 병역거부 양심들도 광복절 사면에서 반드시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2003년 8월 6일

전국 양심수후원회 모임

광주 전남 양심수후원회
대구 경북지역 양심수후원회
대전 양심수후원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새아침이라기에

신현칠 출소장기수 선생님

오늘이 새 아침이라기에
짐짓 생각을 가다듬어
지난 날은 그만두고
앞날만을 생각하리라 마음먹어도
혀를 깨무는 뉘우침이
가슴에 오가는 것은
필부의 뜻이 보잘 것 없는 탓이리라

오늘이 새 아침이라기에
짐짓 생각을 가다듬어
멀리는 그만두고
오늘 하루의 일을 생각하리라 마음먹어도
문득 생애의 남은 날이 헤아려지는 것은
필부의 뜻이 도저하지 못한 탓이리라

오늘이 새 아침이라기에
땅과 세대를 믿고
뜻 같은 벗들을 생각하며
훈훈한 입김으로 숨쉬리라 마음먹어도
살 깊은 미움
푸른 분노가 가슴을 메우는 것은
필부의 뜻이 절박한 탓이리라

오늘이 새 아침이라고
굳이 맹세가 있어야 한다고 마음먹은 것은 아니건마는
이 아침에
필부의 가슴에
못내 되새겨지는 것이 있는 것은
저의 뜻이 슬프도록 간절한 탓이리라

▶ 이 시는 신현칠 선생님의 시집 〈흐르지 않고 고인 물이(2002년 여름 발간)〉 중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손석춘의 R통신]

한총련시위 무엇이 '이적' 인가?

손석춘

당신께 일백 일흔 다섯 번 째 편지를 보내드리며 새삼 강조합니다만, R통신은 신문기사가 아닙니다. 한겨레신문의 논설위원으로서 드리는 편지도 아닙니다. 첫 편지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을 당신과 더불어 살아가는 40대가 젊은 벗들에게 보내는 고백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난 편지 〈'이적단체 수괴'의 맑은 눈빛〉에서 썼듯이 저는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은 민주공화국에서 있을 수 없는 야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총련을 합법화해준다면서 조건을 붙이는 것이야말로 차라리 탄압보다 더 반민주적 발상입니다. 합법화를 미끼로 한총련을 길들이려 한다면 오히려 탄압하는 것이 정직할 터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총련에 대한 마녀사냥이 횡행하고 있는 오늘 저는 옷깃을 여미며 묻고자 합니다.

한총련 학생들이 2003년 8월7일 경기도 포천군 주한미군 사격훈련장에 진입해 시위를 벌인 것이 과연 '이적행위' 입니까.

분명히 밝힙니다. 저는 7일 저녁 뉴스에 방영된 한총련 학생들의 시위 모습을 보며 가슴이 뻐근했습니다. 학생들이 다치지 않아 안도하는 한편 젊은 벗들의 용기에서 이 땅의 희망을 거듭 읽었습니다. 학생들이 생명에 위험을 각오하고 그런 시위를 벌이기까지 얼마나 숱한 밤을 고심했을지 헤아려보며 뼈저린 회한에 잠겼습니다. 그랬습니다. 언론인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미군 최고의 전투 장비를 갖춘 '스트라이커' 부대가 한국에 처음으로 상륙해 군사훈련을 벌이고 그 목적을 "유사시 한국에서 신속히 전개하기 위한 '한국지형 익히기' 에 있다" 고 밝혔는데도 그 문제를 진지하게 제기하지 못한 일차적 책임은 언론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언론은 오히려 한총련 마녀사냥에 나섰습니다.

그것도 한총련 시위 다음날이 아니었습니다. 다음날 미8군 사령관이 '강력 조치' 를 요구하자 그 다음 날부터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는 약속이나 한 듯이 1면 머릿기사로 다루고 사설로 마녀사냥에 나섰습니다. 심지어 "이념적으로 잘못 교육된 철부지들의 망동" 으로 규정하는 사설까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역사는 누구를 '철부지' 라고 심판할까요? 제가 지난 20년 동안 언론인으로 살아왔다는 것이, 언론운동과 언론비평을 해왔다는 것이 더없이 참담했습니다. 거꾸로 된 이 시대에 기자로 존재한다는 데 대해 근본적인 물음을 스스로 던지고 있습니다.

미 8군과 부자신문들의 '엄정 대처' 촉구 때문일까요. 갑자기 고건 국무총리는 토요일인 9일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익과 국민정서에 반하는 중대한 이적행위" 라고 규정하며 "법에 의해 엄중 처벌하고, 배후세력도 색출해 엄단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동맹국 상호 간의 예의를 손상하는 유감스럽고 무책임한 행동" 이라는 뜻을 미국 쪽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묻지요. 도대체 무엇이 '이적' 입니까. 오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남침을 할 의지나 능력이

있단 말입니까. 대체 이 땅에서 전쟁의 먹구름을 짙게 드리운 세력은 누구인가요? 그 먹구름에 대해 우리 대한민국은 과연 얼마나 대비하고 있을까요. 왜 오늘 이 순간 미군의 최정예 기동부대가 대한민국에서 훈련을 해야할까요. 대체 누가 그런 훈련을 이 땅에서 하도록 허락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점에서 한총련 시위는 미국에게 우리 젊은이들의 분명한 의지를 보여준 게 아닐까요. 전쟁위기는 커져가고 언론은 이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아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위기 상황에서 학생들의 몸을 던진 시위야말로 진정한 언론행위가 아니었을까요.

좋습니다. 판단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한총련에게 저 수구세력들과 함께 돌을 던지기 전에 묻기 바랍니다.

누구든 '죄 없는 자' 돌을 던지십시오.

그래서입니다. 이 편지를 읽은 모든 분들이 최소한 아래 두 글을 정독해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두 자료 모두 인터넷에서 퍼왔습니다. 한총련 시위학생들의 유인물(자료1)은 거친 데가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표현이 아니라 절박한 현실인식일 터입니다.

누군가를 비판할 때 첫 걸음은 상대에 대한 정확한 이해입니다. 그 상대가 자신의 삶을 걸었을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한총련 시위 다음날 통일연대와 여중생 범대위가 한총련과 함께 발표한 '미 대사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서'(아래 자료2)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미 대사의 성의 있는 답변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003년 8월 11일

알립니다

양심수후원회에서 새 일꾼을 찾고 있습니다.

장기구금양심수의 석방과 후원을 목표로 결성된 민가협양심수후원회는 15년동안 창립당시 260여명 장기구금 양심수를 모두 석방해 냈고, 2002년 9월 2일에는 비전향장기수 63명을 북녘 고향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장기구금 양심수는 모두 석방되었지만 국가보안법이 살아있고 민중들의 생존권 투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양심수는 지난 4.30 사면 뒤에도 더욱 늘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폐지, 양심수석방 한총련 이적규정철회 정치수배 해제등 양심수후원회가 할 일은 여전히 많기만 합니다. 또한 영치금 넣기와 '만남의 집' 운영, 정순덕 선생님 간병 등 출소선생님 지원사업을 비롯하여 비전향 장기수 2차 송환운동도 벌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한총련 합법화, 6·15 공동선언 이행등 다른단체와의 연대사업도 양심수후원회의 큰 몫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하고 있는 양심수후원회에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일할수 있는 새 사무국 일꾼을 찾고 있습니다. 후원회원이 오신다면 더욱 좋고 주변에 좋은 분이 있으면 추천 바랍니다.

찾는 일꾼 : ○ 명
대　　우 :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합니다.
연 락 처 : 02) 888-4470, 017-260-3333
※ 나이나 성별은 가리지 않고 사회 운동 경력자 환영합니다.

자료 1: 한총련 시위 학생들의 유인물

"스트라이커부대의 북침 전쟁훈련 중단하라!"

미국의 스트라이커 부대가 4일째 이 땅에서 북침 전쟁 훈련을 계속하고 있다. 며칠 동안 이 부대의 북침 훈련을 지켜보았던 우리는 비참함과 분노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지난 50년 미군 폭격기의 폭격훈련으로 매향리 주민들이 겪은 말 못할 고통이 얼마였는가? 미국의 전쟁위협으로 이 땅 민중이 지난 50년 동안 겪었던 좌절과 분노는 얼마였으며, 미국의 패권을 위한 전쟁터에서는 또 얼마나 많은 민중이 죽어갔는가?

지금 당장 한국 민중 앞에 사죄하고 자신의 침략군대를 철수시켜도 시원치 않을 미국이 신속기동군이라는 새 부대를 만들어 자신들이 원하는 때 가장 신속하게 폭격을 감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니 이 얼마나 오만하고 폭력적인 발상인가? 그들의 오만함에 이 땅의 열혈 청년학생이 어찌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더욱이 이 부대의 첫 훈련지가 남한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미국이 북침계획인 작전계획 5030을 만들어내고 스트라이커 부대를 구성이 채 완료되기도 전에 남한 땅에 들이미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훈련은 실제상황과 똑같은 훈련을 통해 한반도 지형과 상황에 익숙해질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된다고 한다. 바로 이 땅의 민중들이 그들의 첫 제물이며 한반도가 그들의 전술의 첫 시험장일 수 있다는 오만한 경고 아닌가?

이 땅의 청년학생들은 이러한 미국의 오만방자한 북침 전쟁연습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애국의 피로 들끓는 이 땅의 청년학생답게 주저 없이 포탄이 비 오듯 쏟아지는 훈련장으로 뛰어들 것이다. 온 몸을 던져 미국의 전쟁훈련을 반드시 중단 시킬 것이다.

지난 55년 동안 우리 민중은 미국의 전쟁위협 속에서 많은 고통을 감수하고 살아왔다. 이제 더는 참을 수 없다. 더 이상 미군 전투기가 민중의 머리 위로 포탄을 퍼붓고 동족을 학살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것을 눈 뜨고 지켜 보지만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힘으로 스트라이커 부대의 훈련을 저지할 것이다. 스트라이커 부대는 지금 당장 한반도에서의 북침 전쟁훈련을 걷어치우고 해체해야 한다. 미국은 일체의 대북 전쟁위협을 중단하고 북미불가침 조약을 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의 투쟁은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우리는 미군의 모든 북침 전쟁훈련을 중단시키고 침략군대를 이 땅에서 몰아낼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 스트라이커 부대의 북침전쟁훈련 결사 반대한다!
- 미국의 대북 전쟁위협 결사 반대한다!
- 미국은 대북 전쟁위협 중단하고 북미불가침조약 체결하라!
- 학살군대 주한미군 당장 철수하라!

자료 2

미 대사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서

1. 당신들은 공식 발표를 통해 대학생들이 병사들과 한국 국민의 안전을 위협했다고 했습니다. 학생들이 길 가의 나무라도 하나 꺾어서 손에 들고 들어갔다면 모를까 맨 몸에 태극기만 두르고 사격장으로 들어간 학생들이 누구의 안전을 어떻게 위협했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연행 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것도 대학생들이고 무장한 미군들의 총부리 앞에서 오히려 생명의 위협을 당한 것도 대학생들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대학생들의 시위가 국민의 생명을 위협했다고 하는 것인지 그 근거를 대 주십시오.

2. 이번에 신설된 스트라이커 부대가 첫 훈련지로 대한민국을 택했습니다. 스트라이커 부대는 신속하게 적을 타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선제공격을 위한 부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훈련이 명백한 북침 전쟁 훈련이며 스트라이커 부대가 첫 훈련지로 대한민국을 택한 것은 한반도가 그 첫 투입장소가 될 수 있다는 우리 민족에 대한 미국의 오만한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나라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대학생들의 시위가 아니라 미국의 북침 전쟁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3. 위 스트라이커 부대의 예에서 보거나 최근 계획된 을지포커스 훈련에서 보듯 대규모 전쟁 훈련, 선제공격 훈련으로 한반도에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바로 주한미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한에서 주한미군이 철수되어야 진정한 평화가 온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4. 당신들은 마치 북한이 핵을 개발해서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조성된 것처럼 말하지만 제네바 합의를 어기고 대북 핵선제공격 계획을 세운 것은 미국입니다. 이 외에 미국은 제네바 합의 합의 사항중 하나도 이행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반도 긴장고조의 책임은 미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이 지금 당장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조건 없이 북미불가침조약 체결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당신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5. 당신들은 지난 6월 주한미군 전력증강을 발표 하면서 국방비 증액과 Pac-3 미사일 등의 무기를 구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강매하고자 하는 무기들이 대부분 MD 체제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무기들이며 언론 보도를 통해 당신들이 국방부 등과 모의하여 국방비 증액을 통해 사실상 MD 체제를 한국에 도입시키자는 전략을 세웠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추진하고 있는 MD가 전 세계적인 미국의 군사패권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이며 결과적으로 세계적 군비경쟁을 불러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반대합니다. 이에 대한 당신들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통일연대 / 여중생범대위 /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숨쉴 수 있는 ‘틈’을 바래요”

이용준 양심수후원회 회원

7월 30일. 양심수후원회 시사모임을 서울의 신촌에서 끝내고 정겨운 정취가 남은 골목길을 지나 허름한 돼지껍질을 안주 삼아 소주를 한 잔 하던 중 난감한 내용의 전화가 온다. 전화의 내용은 양심수후원회 소식지 다음 호에서 회원 탐방 인터뷰를 맡아달라는 것이다. 더 난감한 것은 평소 잘 알지 못하던 통영여고에 재학중인 고선주 학생을 만나달라는 것이다. 알기로는 겨우 통영에 고등학생 회원이 한 명이 있다는 것과 지난 연세대학교 정문에서 토요캠페인 이후 잔디밭에서 이름정도를 알게된 게 전부인 학생이다. 평소 후원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새벽별이라는 아이디로 종종 글을 올렸다고 하는데 나 스스로가 홈페이지 방문을 자주 하지 않는 입장에서 그걸 알리 만무하다.

짧은 시간 고민 끝에 승낙을 하고 적당한 시기를 잡고 있던 중 전화를 걸어 -조금은 어색한 어조로- 나의 소개를 하고 만나고자 하는 목적을 설명한 다음 날짜만 정해놓고 만나는 장소와 시간은 추후 결정하기로 하였다. 그러고 나서 어디서 어떻게 만나야할까 한참을 고민하다 명색 하나된 조국을 위해 남은 생애 뒤늦게 통일운동에 매진하시던 고 윤이상 선생의 고향 후배라는 생각에 착안하여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추측으로 예술의 전당 같은 대규모 문화장소는 가보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에서다. 그러나 이는 어이없게도 빗나간 예상이었다. 과거 언니와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에서 한국 뮤지컬의 큰 기록을 남긴 ‘렌트’를 직접 와서 보고 갔다는 것이다.

그 날 퇴근시각 정각에 퇴근하여 부랴부랴 지하철을 타고 예술의 전당에 당도하여 무엇을 질문할 것인지를 계속 고민하면서 기다리던 중 전화를 해보니 이미 와 있단다. 뒤를 돌아보니 청순한 이미지 그 자체로 자리에서 반갑게 일어나며 서로 인사를 하였다. 샌들을 신고 반바지와 시원한 느낌의 푸른색 줄무늬 셔츠를 입고 있었다. 공연을 앞두고 빈약한 질문을 던지며 서로서로 적극적으로 문답이 오갔다.

첫 번째로 던진 질문은 양심수후원회와는 어떻게 인연을 맺었으며 또 어떻게 운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느냐는 것이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한 질문이었다.

그러나 고선주 학생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긴 설명이 필요했다. 즉 1년 전의 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1학년 재학시절 담임교사가 전교조 소속의 교사였는데 담임 선생님의 영향이 크다고 한다. 즉 선생님께서 평소 강조하시던 내용은 국사교사답게 왜곡된 현대사, 특히 미국의 문제를 자주 강조하셨다고 한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평소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과 서로 협동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달라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다고 한다. 이런 연유로 “박경순 선생님의 단식 투쟁에 큰 충격을 받아 무엇이라도 실천하고 싶었어요”라고 그때의 심정을 담담하게 털어놓는다. 그 실천이 바로 편지를 쓰는 것이었고 박경순 선생은 답장까지 해주었다고 한다. 오늘날 고등학생들의 통상적인 이미지로 일반화시켜 본다면 ‘세상천지 모르는 철없는 청춘’으로 바라보던 나의 시각을 돌려놓는 계기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질문을 하던 도중 공연시작 시간이 되어 공연장 객석으로 들어가 지정된 좌석에 앉아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러 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문화에 대한, 통영에 대한 문제까지 통찰하는 것을 보고 여느 학생과 다르긴 다르다는 확신을 하게 되었다. 통영에

대한 자랑을 해보라는 질문에는 다소 부끄러워하며 "환경이 참 좋아요. 바다도 예쁘구요. 고향이라 그런지 다른 도시와 다르게 정이 많이 가는 곳이랍니다." 음악회가 모두 끝나고 못 다한 질문을 계속하기 위해 예술의 전당 근처의 커피집으로 자리를 옮겨 음료와 케익을 먹으며 계속 담소를 나누기로 하였다. 자리를 옮기는 도중에 고선주 학생은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남발한다. 나에게는 별것도 아닌데 계속 고맙다는 인사를 하자 괜히 민망해진다. -그 날의 음악회는 영미지역의 60년대 팝음악을 영상물로 시대별로 정리해 한국의 유명 가수들과 미국 어느 가수가 오케스트라 반주에 노래를 부르는 것이었는데, 농으로 반미의식을 심어 줘야 하는데 친미의식을 심어주는 콘서트를 보여주어서 미안하다고 하자 잘 가려서 듣는다며 정말 재미있었다고 한다-

자리에 앉자마자 가족환경에 대해 물었다.

고선주 학생은 특히 할아버지를 많이 강조하며 답한다. "어릴 때부터 대가족이었어요. 지금도 증조할머니가 살아 계세요. 할아버지는 전형적인 농가에 농부로 사셨어요. 특별한 사회참여 활동은 없었지만 사회비판적인 의식이 강했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랑 같이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 사회에 대한 많은 문제를 제기하셨어요. 그때는 그러시는 할아버지가 싫었는데 지금은 많이 이해가 되요. 그리고 지금의 가족 분위기는 개방적인 편이랍니다. 결국은 참가하지 못했지만 이번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휴전선 155마일 행진에 참가하려 했어요. 그런데 담임 선생님이 집에까지 전화하시어 반대를 하셨는데도 어머니는 '아이가 가고 싶어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며 저를 많이 이해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 행사는 8?15 행사랑 일정이 겹쳐 포기했단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과거 내가 대학생 시절 어떻게 하면 8?15행사에 참여하지 않을까 잔머리 굴린 적이 있는데 속으로 정말 낯뜨거운 순간이었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중학교에 다니는 동생이랑 산다고 한다. 그리고 동생은 대안학교 지망생이란다.

계속해 대학진학에 대하여 물어 보았다.

전에 이창희 회원으로부터 성공회대학교 전체수석을 목표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부끄러운 표정을 지으며 "전에는 꼭 그 목표를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꼭' 은 아니에요. 당시 성공회대는 제가 추구하는 것과 열린 의식의 교수들도 많이 있었고 대학분위기도 좋아서였어요. 특히 제가 관심을 가진 마르크스 경제학분야가 많이 논의된다고 들었어요." 참고로 고선주 학생은 어느 대학을 가든 사회과학, 그 중에서도 경제학이나 사회학을 전공하고 싶단다. 이렇게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가진 고선주 학생이 참으로 대견스럽다.

이번에는 좀 어려운 질문을 던져보았다. 우리사회에 대한 평가를 내려 달라고. 고선주 학생은 좀 어려워하긴 했지만 자신의 생각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기자가 되고 싶었어요. 이유는 우리나라는 너무 불평등한 것 같아요. 부자들은 많이 편해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많은 차별을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의 많은 간섭을 받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 사회는 나와 다른 것을 많이 존중해 주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까워요. 기득권자들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기자가 되어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데 일조하고 싶었어요."

이런 답을 들으며 우리는 더 이상 고선주 학생에게 무슨 궁금점을 가지랴. 이런 학생을 보자니 또 한편 내 마음 한구석에 슬픈 자조가 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건 아마도 이 글을 정리하는 도중에도 뉴스에는 미군기지 사격장에 들어가 반미와 전쟁반대를 외친 한총련 학생들이 뇌리를 강하게 스치기 때문일 것이다. 미군기지를 들어가는 순간 구속되어 옥살이는 기본이요, 미군의 오발에 총 맞아 죽을지도 모를 일에 어렵게 결의하며 미군기지 사격장에 들어간 용감한 한총련 학생들. 고선주 학생이 대학에 들어가서는 아니 그 이후의 젊은이들에게라도 분단된 조국의 서러움을 더 이상 겪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바래보는 것은 지나친 욕심일까.

고선주 학생 같은 후배들이 있기에 그래도 분단의 슬픔은 희망으로 용기로 분연히 일어나 우리민족끼리 통일을 이뤄낸 조국이 반드시 건설될 것이라는 흐뭇함을 가져본다. 이는 분명 낭만적인 소리이거나 사치심은 아닐 것이다.

모든 이야기를 끝내니 이모집에 신세지는 고등학생 고선주 학생에게는 꽤나 늦은 시간이 되었다. 남은 케익을 마저 먹으라고 권하자 배불러서 못 먹겠단다. 저녁도 안 먹었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하자 더 먹으면 살찐단다. 조금 의아해하며 고선주 학생같은 사람도 몸매 걱정하느냐고 묻자 "여고생이니깐요"라며 한 마디로 일축한다. 여고생이라는 말에 많은 생각을 해보며 같은 방향까지 지하철을 타고 8·15 행사 때 보자는 인사를 하며 각자의 길로 가는 것으로 아쉬운 인터뷰를 끝내야 했다.

※ 다음은 위의 본문에서 다루지 못한 인터뷰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하였다.

●지금 통영여고 학생회 부회장이라고 들었다. 선거에 출마하게된 계기는?

학생회를 학교자치의 꽃이라고 부른다. 학생회를 통해 학교를 체험해보고 싶었다. 그리고 공약사항은 동아리 활성화를 내걸었다. 이유는 학교라는 공간이 그저 입시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숨쉴 수 있는 '틈'을 만들고 싶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많은 한계를 느낀다. 그리고 별로 해놓은 것도 없는 것 같다.

●학교생활에서 일상적인 생활이나 실천하는 것이 있다면?

학생회 내에서 반전평화 뱃지를 판매하고 서명운동을 벌여 450명의 서명을 받아 뱃지 판매 수익금 전부를 한겨레신문사에 전달하였다. 이로 인해 3학년 언니들에게 핀잔을 듣기도 하였다. 그리고 여느 학생처럼 야자(야간자율학습)도 많이 땡땡이 친다.

●작년 6월 효순이와 미선이가 죽었을 때의 심정은?

마음이 아프고 억울한 심정이었다. 사고를 낸 미군은 무죄를 선고받고 한국정부는 진상규명을 위한 의지가 부족했고, 언론은 촛불시위를 왜곡하여 너무 답답했다. 그리고 통영에서도 촛불시위를 하였으며, 빠지지 않고 참여하였다.

●마지막으로 양심수후원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나라에 더 이상 양심수와 정치수배자가 없었으면 좋겠다. 사상의 자유가 있다고 하는데 그 자유가 진짜로 보장되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현재 구속되어 있는 양심수 현황

2003년 8월 4일 현재, 총 97명

아래 자료는 민가협이 2003년 8월 4일 현재, 각 대학 총학생회 및 노동조합, 언론, 법원, 교도소, 구속자 가족 등을 통해 조사한 양심수 현황이다.

2003년 8월 4일 현재, 전국의 구치소, 교도소, 경찰서 유치장 등에 구속 수감되어 있는 양심수는 모두 97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들을 신분별로 분류하면 학생 20명, 노동자 54명, 재야 및 타 19명, 군인 1명, 농민 3명이다.

7월 9일 현재 양심수 97명 가운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양심수는 전체 15명의 15.5%인 명이다. 한편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구속 수감되어 있는 양심수는 총 877명이다.

신분별 분류

총	학 생	노동자	재야 · 기타	군인	농민
97명	20명	54명	19명 (철거민 7 · 노점상 10)	1명	3명

적용법규별 분류

국가보안법	집시법	노동관계 (업방 등)	공무방해	폭력	화염병
15명 15.5%	17명 17.5%	42명 43.3%	24명 24.7%	43명 44.3%	1명 1%

기결, 미결 분류

구분	학 생	노동자	재야 · 기타	군인	농민
기결 4명	2명	-	1명	1명	-
미결 93명	18명	54명	18명	-	3명

- 한사람에게 2개 이상 적용된 법조는 모두 다 포함시켰다.
- 군인, 경찰 구속자는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 집시법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공방 : 공무집행방해
  업방 : 업무방해

나의 여름휴가

문숙희 '후원회소식' 편집회원

25일(금)

일찍 회사를 조퇴하고 변산반도로 출발. 서둔 탓인지 차는 막히지 않더군. 새로 산 텐트를 치려고 자리를 알아보던 중 경찰아저씨가 좋은 정보를 알려주었다네. 조금 더 내려가면 고사포 해수욕장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좋다구…

정말 그 경찰아저씨가 얼마나 고마웠던지. 송림과 드넓은 백사장은 물론 공짜로 야영할 수 있다네. 더군다나 밤늦게 들어가서 주차료도 물지 않았고 주변에는 원광대 합숙 훈련소가 있어서 학생인 척 꼽사리 껴서 샤워도 할 수 있다네(일반 해수욕장 샤워장을 이용하려면 요금을 물어야 하거든). 물론 주변에서는 폭죽이 터지고 음악소리로 시끄러웠지만 텐트에서의 단잠~

26일(토)

좀 늦게 일어나서 밥을 먹은 후 내소사에 들렀다 갑오농민전쟁의 흔적을 밟아보았다네. 주차요금 때문에 -왜 이리 주차요금에 연연하는지 의아하겠지만 아줌마가 되면 다 그렇게 된다네(!). 논두렁 옆에 주차시켜놓고 내소사에 들어갔다네. 마침 이곳에는 청각장애인 국토순례단이 와 있었는데, 조금 가슴 아픈 얘기지만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모임이더군. 한창 소리지르며 뛰어 놀아야 될 나이인데… 이 곳은 대웅전의 꽃살문으로 유명한 절이라네. 또 이곳에 오면 대웅전 천정을 꼭 바라보길 바라네. 이유는… 바라보면 알겠지.

다음은 백산산성. 이 곳은 전봉준 장군이 농민군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회의도 하고 망도 보던 곳이라네. 이 산성은 백산면에 있는데 이름의 유래를 아는지.

"앉으면 죽산, 서면 백산" 죽창을 든 농민군의 수가 어마어마해서 멀리서 보면 마치 하얀 산 같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네. 이 곳은 거의 관리가 안되어 버려져 있더군. 망루에 서서 주변을 돌아보니 끝없이 펼쳐진 푸르른 논. 왜 이곳이 항쟁의 중심이 되었는지 알겠더군. 그리고 전봉준 생가(비교적 잘 보전돼 있음. 직접 방에 들어가서 앉아볼 수도 있음)와 황토현 기념관을 돌아보았다네.

황토현 기념관은 전두환이 만들었는데, 전봉준과 같은 전씨라는 이유로 성역화했다는 얘기가 있다네. 재미있는 건 전두환이 만들었다는 황토현 기념비가 있는데, 전두환이라는 이름 석자를 사람들이 끌(?)로 긁어놓은 흔적이 있더군. 이 또한 하나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지.

27일(일)

야영지로 고사포만한 데가 없어 다시 고사포해수욕장에서 일박을 했다네. 비키니로 갈아입고 -근데 이 곳이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많아 비키니를 입은 사람은 거의 애들뿐이었다네. 다 큰 처녀(?)가 비키니(요즘 유행하는 포피스 형식이라 그렇게 야(?)하다거나 하진 않다네)를 입고 돌아다니려니 좀 민망하더군. 느끼한 아저씨들의 시선도 느껴야 하고… 그래도 바다에 풍덩~. 근데 일년 전에 익혔던 수영실력은 어디로 갔는지 물이 좀 무섭더군. 그래서 그냥 튜브 타고 놀았지.

그리고 진도로 출발했다네. 진도는 우리 부모님의 고향. 나는 태어난 후 약 2개월 간 살았다네. 아직도 할아버지가 계시기는 하지만 정말 십년만에 놀러간 거라네. 진도대교를 건너기 전 울돌목을 돌아보았다네. 파도가 바위에 부서지는 소리가 울음소리같다 해서 울돌목. 이 곳은 바다라기 보다는 마치 홍수난 강물처럼 물살이 급하다네.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이 있었던 곳. 주변에는 강강술래터도 있는데, 당시 왜군에게 사람들이 많아 보이게 하기 위해 마을주민들이 강강술래를 하던 곳이라네. 할아버지 댁은 임회면 삼막리(지도에는 상만리라 돼 있음. 근데 이 근처 사람들은 모두 삼막리라 부르고 마을을 알리는 돌에도 이렇게 써있음)를 찾는데 알고 보니 그 유명한 남진미술관이 있는 동네였지. 그럼 내가 어렸을 적 한적하게 둘러보며 놀던 곳이 남진미술관(?) 도착해서 할아버지와 돌아가신 할

머니 사진을 한장 한장 넘겨보며 밤은 깊었지.

28(월)

아침에 할머니 산소에 갔다가 벽파진에 들렀다네. 여기는 항몽의 꿈을 안고 삼별초가 천척의 배를 이끌고 진도에 닿았던 곳이지. 그 다음은 용장산성. 용장사의 석불도 유명하지만 삼별초가 몽고에 항복한 고려정부에 대항해 또 하나의 정부를 세운 곳이지. 지금은 그 터를 알리는 낮은 돌성이 남아 있지. 다음은 남도석성과 운림산방. 남도석성은 삼별초가 최후를 마친 곳인데, 성 안에는 예전처럼 아직도 사람들이 살고 있다네. 운림산방은 소치 허련이 그림을 그리던 소위 작업실인데, 연못 뒤로는 사철 푸르른 상록수림이 펼쳐지고 연못 위의 작은 섬에는 소치가 심은 백일홍이 있더군. 이만한 작업실을 가지고 있다면 절로 멋진 그림이 나올 듯…

그리고 해남으로 향했다네. 차를 가지고 여행을 간다면 낙조 드라이브 코스를 꼭 이용하도록. 그 이름도 재밌는 발가락섬, 손가락섬 등이 바다 위로 펼쳐지는 해안도로를 달리고 있으면 마치 꿈을 꾸고 있는 듯한 기분일거라네.

29(화)

오늘은 해남 강진을 돌 차례. 날씨가 너무 안 좋아 강진의 구강포며 해남의 풍광을 제대로 볼 수 없어 아쉬웠다네. 땅끝에 도착. 이쯤에서 내가 좋아하는 김지하의 시 '애린' 을 소개하지.

땅끝에 서서 / 더는 갈 곳 없는 땅끝에 서서 / 돌아갈 수 없는 막바지 / 새 되어서 날거나 / 고기 되어서 숨거나…. /혼자 서서 부르는 / 불러 / 내 속에서 차츰 크게 열리어 / 저 바다만큼 / 저 하늘만큼 열리다 / 이내 작은 한덩이 검은 돌에 빛나는 /한오리 햇빛 / 애린 / 나.

해남은 시인들의 고향이라네. 많은 시인들이 해남과 땅끝을 노래했고 김남주, 이성복, 고정희의 고향이라네. 김남주와 고정희의 생가를 들렀는데, 김남주 생가에는 마침 김남주 선생 동생의 부인이 내려와 있어서 생전의 얘기를 들을 수 있다네. 김남주 육성 시 낭송 CD까지 선물로 받았지. 방에는 김남주가 보던 책이며 쓰던 유물들이 그대로 남아있더군.

고정희 생가는 표지판만 있을 뿐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 보존이 하나도 안돼있더군. 고정희 시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좀 아쉽더군.

그리고 대둔사(대흥사)→다산초당→백련사로 향했다네. 여기는 유홍준이 하도 많이 써놔서 생략. 구림리 장춘동 계곡, 이광사와 추사의 현판글씨, 꽃살창문, 천불전(이하 대둔사), 다산초당으로 올라가는 귤동마을, 세죽숲, 천일각(다산초당, 다산 기념관이 세워졌더군), 백련사 앞 백일홍, 동백나무숲 등은 다 알고 있겠지.

30(수)

이 날도 역시 날씨가 안 좋았다네. 정말 휴가기간 내내 날씨가 별로 안 좋아서 제대로 된 사진 한장 없다네. 보성 차밭에 들렀다네. 차밭이 위치한 산의 이름은 몽중산. 산의 이름을 따 차 브랜드는 '꿈 속에 본 차' 좀 어색하긴 하지만 멋지더군. 차밭 옆에는 삼나무 산책길이 조성돼 있다네. 보기 드문 좋은 산책로지. 입구에는 일인당 천원에 차를 마실 수 있도록 다실을 만들어놔서 차 한잔 마셨는데, 역시 맛이 좋더군. 그런데 차를 산 사람은 공짜니까 여럿이 갈 경우 차를 하나 사고 공짜 차를 마시면 더 맛있을 듯…

다름엔 벌교로 향했다네. 태백산맥의 배경이 된 곳. 가장 상징적이라 할 수 있는 부용교(소화다리)를 찾았다네. 이 곳은 여순사건, 6 · 15 등 현대사의 비극이 있을 때마다 피로 물들었던 다리라네. 그 다음은 낙안읍성. 진도의 남도석성이 제대로 복원이 안된 것과 달리 이곳은 유명 관광지라네. 어찌나 넓고 큰 지 더운 날 다 돌고 나면 아마 지칠 듯. 들어가는 성문 해자 앞에 석구가 있는데, 개모양을 새겨놓은 곳은 이곳이 유일하다고 하더군. 낙안읍성에서는 황토염색을 스스로 해볼 수 있는 체험장도 있으니 결혼한 후 애들과 함께 와보면 좋은 곳. 아이들이 무척 좋아할 만한 여러 가지가 많이 만들어져있더군.

그리고 선암사. 조계산 송광사와 함께 유명한 절인데, 굴참나무 산책로도 좋고 고색창연한 대웅전도 멋진 절이지. 난 낙안읍성에서 더위를 먹는 바람에 사실 이 곳 구경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아쉬웠지. 그리고 여수항으로 향했다네. 날씨가 안 좋아서 향일암 일출을 볼 리는 만무했지만 혹시나 하고 가장 가까운 죽포

리 해수욕장에서 야영을 계획했지. 죽포리 야영은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다네. 해수욕장 송림에서는 야영 금지로 돼 있고 버려진 공터에서 야영을 하도록 돼 있는데, 야영로 5,000원도 내야하고 주차료도 따로 내야 한다네. 그리고 횟집은 어찌나 비싼지. 쩝~ 할 수 없이 라면 끓일 수밖에 없었다네. 벌써 몇 끼째 라면인지…

31(목)

휴가의 마지막. 흑… 일찍 향일암으로 향했다네. 바위틈으로 난 좁은 틈새를 지나 향일암 대웅전으로 오르면 드넓은 망망대해가 펼쳐진다네. 여기보다는 관음전 앞에서 보는 풍광이 더 좋더군. 다시 좁은 바위동굴을 통과해 관음전에 오르면 아무것도 가리지 않은 푸르른 바다뿐. 전망하기에 좋은 바위 위에 앉아 바라보고 있으면 아마 가슴이 탁 트이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네.

그 다음은 오동도로 향했다네. 오동도로 가기 위해선 중앙로터리를 지나야하는데, 이곳은 여순사건의 주역인 14연대가 인민재판을 했던 곳이라네. 중앙로터리에서 조금 올라가면 중앙초등학교(48년 당시는 종산국민학교)가 있는데, 이 곳은 좌익이 즉결처형 당한 곳이라네. 당시 14연대 소속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좌익에 동조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교실에 가둬지고, 운동장에서 일본도로 살해됐다고 하더군. 처형한 뒤 운동장에 바로 묻기도 했다네. 운동장을 잠시 거닐어봤는데, 기분이 좀 묘하더군.

오동도에 갈 계획이 있거든 꼭 유람선을 타라고 추천해주고 싶네. 일인당 1시간에 6,000원 정도로 값도 저렴할 뿐 아니라 선장아저씨가 주변 섬에 얽힌 전설 등을 구수한 전라도사투리를 섞어가며 얘기해주는데, 듣고 있으면 금방 시간이 간다네. 바다의 꽃섬 오동도는 정말 꽃이 필 때 와야겠더군.

앗! 퇴근시간이군. 여수에서 또 유명한 곳이 만성리 해수욕장인데 검은 모래사장으로 알려져 있지. 검은 모래 눈뜨는 날이라고 모래의 지열이 위로 올라오는 날이 있는데, 이 날이 전국각지에서 찜질을 하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온다는군. 근데 이 곳 해수욕장 뒤편에는 만성리굴이라고 있는데, 이곳도 여순사건의 비극이 남아있는 곳이지. 사실 여수는 다니는 곳곳이 비극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지. 만성리굴은 차량통행을 위해 만들 100미터 가량의 긴 굴인데 이곳에서 좌익들이 처형당했다는군. 굴을 지나면 야산이 하나 있는데, 처형당한 사람들이 집단 생매장된 곳이지. 여순사건은 아직도 역사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어 이곳 야산은 거의 버려져있더군. 만약 알고 가지 않으면 여러 개의 얕은 구릉이 무덤인지 알 수도 없을 듯. 잡초가 무성히 자란 커다란 무덤 앞에는 팻말이 하나 놓여 있더군. '이곳은 형제의 묘이니 무덤을 쓰지 마시오 - 형제일동' 마치 제주의 백조일손지지(조상은 여럿인데 자손은 하나, 누가 누군지 몰라 유골 확인을 할 수 없다는 뜻)를 연상케 하더군.

그리고 마지막 소라면 봉두리에는 여수공원묘지가 있는데 언덕으로 조금 올라가면 여순사건 희생자의 묘가 2기가 있더군. 마지막으로 문병란의 시를 소개하며 수키의 휴가보고서는 끝! 휴~

여수 오동도 동백꽃이 / 무슨 빛깔인가 / 붉다 못하여 / 그 빛깔 사뭇 핏빛인 것을… / 누구를 위하여 그는 / 50년 간 피눈물 속 / 진한 핏빛으로 / 통곡해야 했는가. / 我(아)와 非我(비아)의 구분도 없이 / 敵(적)과 同志(동지)의 분별도 없이 / 남의 총 남의 칼 손에 들고 / 형제의 가슴에 처절히 뿜었던 / 민족 분단의 눈 먼 총소리. / 옥과 돌이 구분 없이 / 한꺼번에 마구 타버리고 / 이념과 사상이 / 눈 먼 애비가 된 캄캄한 밤 / 길 잃은 심청이는 / 애비의 지팡이보다 칼을 쥐고 있었느니라. / 하룻밤 폭풍에 찢긴 / 여수 오동도 동백꽃은 / 어머니 가슴 쪽빛 바다에 / 제 그림자 드리우고 / 갈기갈기 무너진 가슴 / 잿더미 불바다 위에서 / 어버이는 땅을 치며 통곡했느니라. / 잘못 핀 동백꽃 / 너무 일찍 핀 진달래 / 그 눈먼 꽃을 위하여 다시 봄바람 불러오고 / 그 날의 심봉사를 위하여 / 그 날의 심청이를 위하여 / 여기 부르지 못한 노래를 쓴다 / 태우지 못한 향을 사르고 / 흘리지 못한 눈물을 태운다 / 원수고 동지고 한 자리 불러 모아 / 역사여, 거꾸로 흐르지 못하는 / 대하의 강물 줄기여, / 오늘 이 자리 고개 숙이고 / 여수 오동도 동백꽃 / 이름 없는 돌비 앞에 / 늦어버린 속죄의 조가를 읊조린다 / "오오 그대들은 / 이제 죽음 속에 무죄이니라"

문병란시인의 '여수 오동도 동백꽃' 전문

"저에게 양심수라고 하니 부끄럽습니다"

권오헌님께

지루하게 내리던 장마비도 줄기가 약해지는 것을 보니 장마도 이제 끝나가려나 봅니다. 저는 경주교도소에서 복역중인 화물연대 포항지부 조합원 김태영 입니다.

처음 양심수후원회에서 영치금을 보내주셨길래 왜 나한테 영치금을 주는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대구·경북지역 양심수후원회 사무국장이신 윤보현님의 편지를 받고는 의문점이 풀렸습니다.

이제까지 양심수라고하는 말들은 남의 일이라고 생각 하였습니다. 저에게 양심수라고하니 다른 수많은 구속된 동지들과 수배된 동지들에게 부끄럽습니다.

보내주신 책자들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사회에서 접해보지 못하던 책자들이라 생소했습니다. 하지만, 자꾸 읽을수록 마음이 와 닿는 내용들이 었습니다.

저희들의 재판소식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7월 22일 1차 심리를 받았습니다만 판사들의 휴가관계로 2차 심리가 8월 21일로 잡혔습니다. 참,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언제쯤 우리나라에서 양심수라는 말이 없어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투쟁을 해서 현정부를 이길수 있는 강력한 힘을 길러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양심수후원회라는 말도 없어지겠죠. 그때까지 양심수후원회에서 수많은 양심수들을 위하여 끝없는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저희 화물연대 동지들에게도 끝없는 관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가방끈이 짧다보니 편지가 두서가 없고 글씨가 엉망입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경주교도소에서

화물연대 포항지부 김태영

김태영님께서는 지난 화물연대파업으로 인해 현재 경주 교도소에 수감중입니다.

인제군 진동리에 다녀와서

이현근 '후원회소식' 편집위원

꽃님이네 집 마당에 있는 나무로 지은 작은 정자에 권오헌 선생님과 김길자, 향숙 씨가 점심을 먹고 누워서 잠시 오수에 빠져 있고, 곁에서 나와 함께 쉬고 있는 오감시롱 김혜순 회장에게 점심을 막 마친 꽃님이네 아빠가 다가온다.

"점심이 맛있었나요?"

"예, 아주 잘 먹었습니다. 국도 맛있고 아주 맛있었습니다."

"환경기행은 얼마나 자주 다니나요?"

"일년에 한번 정도 갑니다. 재작년 7월에 새만금 간척지와 거전 갯벌을 갔었고, 작년에는 태안의 신두리 해안사구로 기행을 갔습니다."

"기행은 1년에 몇 번이나 갑니까?"

"많을 때는 1년에 네 번, 적게는 두 번 정도 갑니다. 10년 넘게 다니다 보니 이제는 갈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나요?"

"아닙니다. 농담입니다."

김혜순이 웃으면서 답한다.

꽃님이네 집안에서 진동계곡을 바라보면 산세가 완만하게 멀리 점봉산 자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곳에 들어올 때의 깊은 계곡 옆으로 난 위험하고 험악한 도로와는 확연히 대조적이다. 마치 오래 전에 잃어버린 장소를 다시 찾아온 것처럼 아늑하고 고적하다. 답사를 못해보고도 이런 장소를 찾았다는게 행운처럼 여겨졌다.

도시를 벗어나서 어디를 가도 붉은색과 푸른색 간판을 시위하듯이 내건 가든과 갈비집과 러브호텔들이 빠진 풍경을 생각할 수 없는 현실이다.

꽃님이 아빠는 진동리 같은 마을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고 우리는 그 반대라고 생각한 것 같았다. 그래서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알맞은 장소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했다. 진동계곡을 기행지로 찾아내는 것도 쉽지 않았다. 사전 답사를 왔을 때 한참 아래쪽에 있는 방동계곡 주변에서 여러 곳을 들르면서 물어보아도 진동리에 대한 정확한 얘기를 들을 수가 없었다. 가는 길도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방동약수 위쪽에 있는 방태산 자연 휴양림으로 기행 장소를 정했다. 답사를 마치고 돌아와서 진동계곡은 꼭 가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터넷을 뒤지고 신문에 난 기사를 찾아보고 강사를 섭외하는 과정에서 진동리에 사는 꽃님이네 아빠와 연락이 닿았다. 전화로 수십 차례 연락을 해서 이곳에 올 수 있었지만 들어오기 전까지도 이곳의 풍경을 전혀 상상할 수가 없었다.

진동계곡을 찾아가는 길은 처음 가보는 사람은 포기

하고 돌아가게 만들 정도로 아주 험하다. 방동계곡(사실 이곳도 진동계곡의 일부이다. 마을 이름을 따서 이렇게 부른다) 상류 쪽으로 도로를 따라 올라가다가 포장도로가 끝나는 곳에서 비포장 도로를 타고 차로 30분 넘게 올라가야 한다. 계곡이 깊고 길이 험해서 시간이 한참은 더 걸리는 것 같았다.

답사 때 가보지 못해서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고 있었고, 좌우로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수십 미터 아래 계곡을 내려다보며 제대로 가고 있는지 걱정이 되었다. 뒷좌석에 앉아서도 기사 아저씨의 불만을 느낄 수 있었다. 두 번이나 내려서 이정표와 도로를 확인해야 했고 오가는 차도 거의 없어서 길을 물어볼 수도 없었다. 핸드폰도 이곳의 계곡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왼쪽으로 계곡이 흐르고 차 한 대만 겨우 다닐 수 있는 길로 접어들어서 좀 더 올라가자 민박을 하는 듯한 집들이 드문 드문 보였고, 조금을 더 올라가자 오른쪽 산아래 벽을 흰색으로 칠한 단층 짜리 학교건물이 보였다. 직감으로 꽃님이와 동생 지민이가 다니는 진동분교라는 것을 알았고 거의 도착했다는 안도감이 들었다.

꽃님이네 집 앞에 있는 작은 계곡을 넘으면 진동계곡 앞까지 탁트인 벌판인데 겨울에는 이곳이 설피밭으로 변한다고 한다. 계곡은 왼쪽으로 곰배령으로 넘어가는 길과 오른쪽으로 단목령으로 넘는 길로 갈라지는데 우리는 곰배령을 넘는 길로 택했다.

우리를 안내한 꽃님이 아빠는 오래 전에 도시생활을 접고 스스로 이곳을 택한,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인상이 후덕하고 느긋해 보이는 분이었다. 우이령보존회에서 활동하고 진동계곡과 곰배령에서 생태학교도 열면서 환경운동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분으로 소개를 받았고, 이곳의 아름다움을 보고 가는 것만으로도 살아가는데 하나의 지침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우리 일행이 아이까지 포함해 40명이 넘어서 말로만 듣던 진동리의 강선계곡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좁은 산길로 길게 늘어서서 갈 수밖에 없었다. 앞에서 꽃님이네 아빠를 따라가면서 설명을 들은 분들도 있었고 조금 뒤쳐져서 아이들과 천천히 걸으며 계곡과 하나 된 것처럼 가는 가족도 있었다. 이곳에서는 아무도 무얼 하라고 강요할 필요가 없었고 모든게 자유로웠다. 잃어버릴 것도, 애쓴다고 얻어질 것도 없었다. 계곡에 들어오기 전에는 가만있어도 목덜미가 후끈 달아오르고 등에 땀이 흐를 정도로 볕이 뜨거웠는데 계곡으로 접어들면서 나무들이 우거져서 계곡을 덮었기 때문에 산길을 그늘 속에 걸을 수 있었다. 길 바로 왼쪽에는 차고 빠른 물살이 좁은 계곡을 타고 흘렀다. 바위와 돌들을 부딪히며 내려가는 물소리에 사람들의 대화와 웃음소리, 그리고 아이들의 낭랑한 목소리가 섞인다.

낙수차 때문에 생긴 작고 한길 정도 되는 깊은 소에서는 팔뚝만한 열목어들을 볼 수 있다지만 어제 온 비로 물이 흐려서 깊은 속을 들여다 볼 수가 없었다.

길섶에는 물봉선, 큰까치수염, 달맞이꽃, 동자꽃, 닭의 장풀, 곰취, 좁쌀풀, 노루오줌풀꽃 같은 야생화가 핀다. 꽃님이 아빠는 모든 꽃들의 이름과 생김새 그리고 피는 시기와 장소를 알고 있고 일일이 우리에게 들려주었다.

계곡 옆으로 난 완만하고 서늘한 2km쯤 되는 산길을 30분 정도 올라가면 왼쪽에서 흐르던 계곡과 우리가 걷는 산길이 만나고, 그곳에 크고 작은 돌들을 대충 놓은 징검다리가 있다. 아이들이 물 속에 일부러 빠지고 어른들도 물을 튀기며 장난을 친다. 물이 차가워서 금새 사지에 소름이 돋고 입술이 파래질 정도지만 아이들은 물의 유혹을 견디지 못한다.

아이들과 보호자 격으로 정인태 씨와 어른들 몇 명 남고 나머지 일행은 꽃님이 아빠의 뒤를 따라 다시 산길을 오른다. 징검다리를 건너서부터는 숲이 더 우거지고 어둡고 습하다. 젖은 풀냄새가 나는 산길은 사람

하나 정도 다닐 정도로 좁아지고 좀 더 산 위로 이어진다. 계곡은 이제 오른쪽에서 흐르고 길에서 조금 떨어진 아래에서 깊이 흐른다. 산 위로 조금씩 올라가면서 계곡이 수십 길 아래 보이기도 하고 산과 나무에 가려지기도 하는데 소리가 계곡에 갇혀서 낮고 조용한 소리로 울린다.

시간을 보니 1시가 넘었다. 잰걸음으로 이삼십분이면 곰배령에 닿을 수 있다고 하는데 2시가 버스 출발 시간이기 때문에 더는 오를 수가 없었다. 1시간을 넘게 산을 올라왔어도 산길이 완만하고 숲이 깊어서 땀 한방울 나지 않았다.

점심은 꽃님이네 집에서 도라지, 무채, 오이채, 시금치, 버섯, 당근만 들어간 나물에 고추장만 넣은 비빔밥을 먹었는데 맛이 담백했고 곁들인 된장국이 맛있어서 두 그릇을 먹은 사람들이 많았다.

"이런 곳에 들어와 산다는 결정이 쉽지 않았을 텐데요."

김혜순 회장이 사람들을 챙기느라 정자를 내려가자 내가 꽃님이 아빠에게 물었다.

"쉽지 않았지요. 그래도 살다보니 사람이 사는 것은 어디나 같다는 생각입니다."

집을 지은 이야기이며 아이들이 쉽게 적응하고 건강하게 자란다는 짧은 대화 속에 감춰진 그의 삶을 짐작할 수 있었다.

"아까 계곡을 올라오다 보니 군데군데 도로 포장공사를 하고 있던데요."

"벌써 몇 년 됐습니다. 몇 년은 더 걸리겠지요."

나도 꽃님이 아빠도 포장된 도로가 생긴다면 그 결과가 어떻다는 걸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진동계곡을 빠져나와 방태천 그리고 내린천을 따라 한시간이 넘게 버스를 타고 내려와서 내린천과 설악쪽에서 흘러오는 인북천이 만나서 소양호로 흘러드는 것을 내려다볼 수 있는 합강정에 도착했다.

합강정이라는 정자 옆에는 이 고장 태생인 박인환 시인의 시비가 있다. 시비에 새겨진 시인의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으로 시작되는 감각적인 시는 뜨거운 여름의 태양 때문에 제대로 느낄 수 없었지만 합강으로 뛰어내리고 다시 서너 번을 튀어오르는 아찔한 번지점프를 구경할 수 있었다.

팔월 십일 이후에는 진동계곡과 곰배령이 꽃의 융단으로 덮인다고 한다. 글을 쓰고 있는 지금이다. 꽃님이 아빠는 그때의 이곳을 '사운드 오브 뮤직' 에 나오는 들판을 생각하면 된다고 했다. 그 말만 들어도 설레는 사람들이 많았다. 곰배령에 오르면 어떤 이는 넋이 나가서 운다고 한다. 진동계곡을 떠올리면 곰배령 아래에서 보았던, 풀섶에 가리고 흙 속에 반은 파묻혀서 쉽게 눈에 띄지 않는 진보라색 애기앉은 부채꽃을 닮았다는 생각이 든다. 서늘하고 어둡고 고요하다.

인터넷을 뒤지며 부족한 정보를 안타까워 한 것을 지금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다음에 다시 갔을 때 방동약수터의 한적한 아침산책을 다시 즐길 수 있고, 우리가 묵었던 방태천 옆 아침뜨락의 깨끗하고 쾌적한 잠자리와 정갈한 아침식사가 변하지 않고 있을런지.

술에 취하고 노래에 취해서 밤늦도록 불렀던 노래들과 양인철의 기타 소리, 명태와 어울리는 웃음소리, 김필호의 빠르고 전형적인 경상도 사투리, 계곡을 빠르게 흘러 내려가는 거친 물소리, 흐린 구름을 걷어내고 서편 하늘에 떠있던 반달을 우리 모두는 깊은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을 것이다.

나무와 숲과 물과 물소리와 꽃과 풀 향기와 사람들이 분명 하나였고, 꽃잎처럼 우리의 넋이 열렸던 진동계곡의 경험을 절대로 잊을 수 없을 것이다.

휴가 같았던 산행

이창희 양심수후원회 회원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시사모임 회원이기에 후원회 산행에서의 시사강좌를 준비하면서 날마다 내리는 비로 인해 산행에서도 비가 많이 오지 않을까 걱정했다. 하지만, 비는 오지 않았다. 덕분에 평소 운동을 게을리 하던 나는 산행이라도 해서 부족한 운동을 메워야겠다는 즐거운 마음으로 집에서 산으로 향했다.

'옴시롱감시롱 기행' 등 많은 행사가 겹쳐진 산행 일정이어서 인지, 예전에 한 번 회장님과 유기진 선생님과 함께 오르던 3인의 산행과 같았다. 이번에는 권오헌 회장님이 신현익 산행모임장님과 바뀌어서 참가한 것만 달랐다. 3인의 조촐한 산행이었지만, 마치 휴가와 같았던 넉넉한 산행이었다.

10시 20분, 지금 구로역인데 늦게 라도 합류하겠다던 이용준 열성회원을 오지 말라고 만류하면서 우리는 도봉산 입구 표지판에서 우이암으로 출발했다. 비가 많이 와서인지 계곡의 물소리가 더욱 힘찼다. 시원한 물소리를 들으니 더위도 날아 갔다. 금방 우이암에 오르고, 전망 좋은 곳에 위치한 마치 배꼽같이 움푹 패인 바위 위에서 점심을 먹었다. 산에서 먹으면 뭐든지 맛있다는 이야기는 진리였다.

식사 후 시사공부도 했다. 준비된 자료를 통해 '당면의 한반도 전쟁위기' 를 이야기하며 서로 조국에 대한 운명에 대한 걱정을 토로하였다. 줄곧 이런저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며 오르고 내리는 산행에는 또 다른 맛이 있었다.

그런 세상 걱정의 뜻이 통해서 였는지, 우리는 반가운 분들을 우이동으로 향하는 하산 길에 만났다. 밧줄로 내려가는 코스에서 앞의 일행이 왠지 낯익어 말을 거니 민주노동당 간부들이었다.

서울이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바위 위에서 잠시 쉬면서 서로 인사를 나누고, 유기진 선생님께서 좋은 덕담을 우리 모두에게 나누어주었다. "해방이후 우리는 조직을 중시 여겼고, 그러한 조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스스로의 반성과 비판이었다."라는 짧은 말씀은 진보를 바라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매우 소중한 것이었다.

내려오는 길에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계곡에서 우리는 멱을 감았다. 서로의 등을 어루만져 주면서 한 여름의 더위를 날려 버렸다. 여성분들이 오셨으면 이러지 못했을거라는 농담을 나누면서 말이다.

산을 다 내려오니 소나기가 매섭게 퍼부었다. 마침 뒤풀이 집을 찾고 있었는데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근처 보신탕 집으로 가서 그것으로 뒤풀이를 하였다. 음식의 기운이 넘치니 비도 그쳤다. 다시 해가 쨍쨍 비쳤다. 참으로 대단한 음식이었다. 이 음식을 베푼 현익형님에게 감사한다.

7월 20일에 만난 좋은 날씨와 산, 좋은 사람들과 이야기, 좋은 물과 음식… 하루의 산행에 여름의 모든 휴가 코스가 압축된 듯 하였다. 모처럼의 좋은 휴가였다.

알립니다

9월 산행

가을의 초입에서 북한산을 오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언 제 : 9월 21일 일요일 오전 10시
장 소 : 북한산
모이는 곳 : 우이동 그린파크
갖출 것 : 회비 3000원, 도시락 등
차 편 : 지하철 1호선 수유역
버스 6, 6-1, 23, 28
문 의 : 신현익(017-233-2800), 888-4470

신나는 활동! 잔잔한 변화!! 멋진 회원!!!

주경임, 김숙희 양심수후원회 회원

7월 16(수)~17일(목)일은 후원회에서 처음으로 워크샵을 개최한 날이다.

홈페이지에서 약도를 뽑아 온 숙희와 미성이를 숭실대역에서 만나 봉천동 언덕길을 굽이굽이 도는 마을버스를 타고 주최측 말에 따르면 너무나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다는 약도를 보며 찾아간 곳은 봉천동 나눔의 집. 어렵게 장소를 구한 곳이다. 미리 준비한 글들을 벽에 부착하고 있을 무렵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는 회원들. 얼추 회원들이 모인 시각은 9시. 용준이의 사회로 드디어 워크샵이 시작되었다.

첫 번째 프로그램인 영상물 상영. 도균이한테 구한 영상물은 아쉽게도 빌린 장소에 TV가 없는 관계로 캠코더 화면으로 오붓하게 보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민중의례에 이어 회장님 인사말이 끝나고, 워크샵을 열게 된 개요 설명을 송창학 기획간사가 마치면서 1부는 마무리되었다.

2부 분과별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우리는 율동 배우는 시간을 가졌는데, 숙희가 준비 해 온 음악아래 민정이의 지도로 '사박자 춤'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아- 이거 몇 년 만인가? 80년대 춤이라니! 혁이와 나는 물 만난 개구리처럼 뛰었고 의숙언니, 승미언니는 흡족하게 따라했으며 90년대 아이들은 뭐 이런 게 다 있노? 하면서 찔찔 메고 있었다. 푸하하- 늘 율동은 신세대 아이들 차지였는데… 그 중에 제일 재밌는(?) 회장님. 박자 감각이 없으신지 방향 감각이 없으신지 자꾸 우리랑 반대 방향만 보고 서 계신다. 아무래도 나중에 특별강의를 받으셔야 할 것 같다. 우리는 모두 땀을 뻘뻘 흘리며 율동을 따라했고 회장님은 사박자 춤을 후원회 공식 춤으로 하자는 제안까지 하셨다.

2부 분과별 토론은 '1과제 : 북핵과 한반도 정세, 2과제: 시민단체의 운영, 3과제: 활동과 생활' 이렇게 정해진 3가지 주제를 가지고 나눠서 진행을 했는데 각 분과별로 지정된 30분을 훌쩍 넘겨 무려 2시간에 걸친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3부 전체토론은 분과별 발표시간 10분씩과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아래 내용은 워크샵 때 서기를 맡았던 김숙희 회원이 정리한 내용이다.

1과제 : 북핵과 한반도 정세

올해가 정전협정 50주년이 되는 해다. 이를 맞아 이제는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는 해가 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은 94년 NPT를 탈퇴함으로 외교적으로 미국에 승리를 보여줬으며, 이후 북한의 전쟁 억지력과 외교술로 미국을 압박해 들어갔다. 미국은 표면적으로는 북한을 위협하고 있으나 결국은 북핵 문제에서도 다자회담 속 양자회담으로 성사될 것을 전망할 수 있다. 즉, 북한은 형식적으로 다자회담을 수용하면서 실질적인 양자회담으로 실리를 추구하고 있으며, 미국은 대외적 명분용으로 다자회담을 추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남한에서 미국을 넘어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민중들의 힘을 더욱 키우고 노무현 정권은 식민지 정권의 한계를 뛰어 넘어 민중들의 요구에 답하는 정권이 되어야 할 것이다. 노무현정권은 현재 보수세력의 눈치를 보며 흔들리고 있고, 이는 결국 보수세력의 힘을 키워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우리는 정부에 끊임없는 압박을 행사하며 주장을 펼쳐 나가야한다. 또한 국가보안법 철폐를 비롯한 단체 활동의 중요성도 대두되고 있으며, 양심수후원회는 좀더 활발한 활동을 통해 시민단체에서의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타 시민단체 또한 실질적인 활동과 내부적 역량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2과제 : 시민단체의 운영

NGO 역할이 대두되면서 민중과 시민의 개념으로

시민단체가 나뉘어지게 되는데 양심수후원회(이하 후원회)는 민중운동단체로 볼 수 있다. 또한 자주 · 민주 · 통일을 지향하고 있음에 타 시민단체와 차별성을 두고 있다.

80년대가 운동 자체가 금지되던 시대였다면 90년대 중반 이후에는 형식적 민주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인권, 환경 문제가 대두되었고, 운동은 점점 사회적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후원회 또한 기본적 원칙을 바탕으로 활동의 범위를 넓히는 과제를 안고 있다. 예를 들어 인권운동 사랑방이 전 방위적 인권 문제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면 후원회는 자주 · 민주 · 통일을 향해 가는 도중의 인권 문제 즉, 양심수들을 중심으로 하는 인권을 초점으로 운동을 전개함으로서 그 폭을 넓게 가져갈 필요가 생긴 것이다.

후원회 활동의 내부를 살펴볼 때 현재 젊은 회원들의 참여율은 점점 높아가고 있으며 회원들의 활동성도 활발해지고 있다. 반면 재정확대라든가 활동가들의 복지문제 등은 극복할 과제로 남아 있다. 이러한 문제들의 상당부분은 후원회만의 노력으로 풀기 어려운 점도 있으나 참여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활동으로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는 체계화된 시스템으로 활동가들의 업무 하중을 분산시켜주고, 보다 역동적인 사업 추진과 과학적인 회원 관리가 가능해져 전체 운동에 기여하는 바도 더욱 커지리라 판단된다.

3과제 : 활동과 생활

'활동과 생활' 은 운동을 함에 있어 누구에게나 포함되는 전반적인 문제이며, 앞으로도 꾸준히 고민해야 할 과제이다. 활동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의식주가 해결되고 경제적으로 뒷받침될 때 왕성한 활동도 이루어짐을 볼 수 있다. 즉, 전반적인 생활의 해결이 활발한 운동을 이끌어 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우선,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단체(모임)가 있어야 한다. 개인적으로 활동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인데 이런 의미에서 후원회는 큰 역할을 해주고 있다. 회원의 활동으로 운동의 틀을 만드는 후원회는 다양한 활동을 필요로 하는 사회에 회원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

그러나 후원회에서도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존재한다. 예전부터 활동했던 회원들의 참여율이 주춤하고 있는 것과 회비만 내고 활동이 없는 회원들을 어떻게 이끌어 내느냐가 그 중의 하나이다. 이는 큰 틀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활동' 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도 필요하다. 작은 것에서의 실천도 중요함을 알리고 '활동은 곧 생활 속에 있다' 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후원회의 역할이라 볼 수 있겠다.

80년대의 활동이 결의만으로 가능했다면 90년대를 넘어 21세기에는 '준비된 활동' 이 필요하다. 활동을 하면서 생활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를 비롯해서 활동가들도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사람들은 흔히 "활동" 을 100%를 위한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10~20%를 위한 조그만 활동도 소중하고, 필요함을 알아야 한다. 조금씩 움직이는 변화들이 100%의 승리를 가져옴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좀더 많은 고민과 실천으로 생활과 조화롭게 할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하다. 지금 서 있는 자리만이 아니라 먼 훗날 자신의 모습을 그리며 활동가로서의 성실함을 보여줄 때 활동과 생활은 함께 할 것이다.

토론과정에서 후원회원 13년 차인 이득형 회원이 한 말이 생각난다.

"나에게는 한번도 양심수후원회 활동이 걸림돌이 된 적이 없다. 내가 살아가는데 힘이 되어주는 후원회 활동은 비록 여건 때문에 자주 못하는 날이 많을지라도 변함 없이 꾸준히 하겠다."

바로 이런 마음이 양심수 후원회의 힘이 아닐까? 이런 마음과 마음으로 모인 사람들이 만나서 또한 어찌 즐겁지 않으리요.

신나는 활동! 잔잔한 변화! 멋진 회원!!!

이 구호는 이번 워크샵의 부제다. 이 구호에 함축되어 있는 여러 의미를 생각하며 우리 모두 양심수후원회의 멋진 회원이 되자.

마지막으로 워크샵을 준비하느라 애쓰신 준비팀과 참여해주신 회원 분들께 감사드린다.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국제민간법정

중 재 결 정

신청인 김애영, 박석률 외 명

당사국 1. 미합중국
대리인 변호사 권정호, 김학웅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리인 변호사 심재환, 김용진

주 문

1. 본 법정은 한반도 핵문제에 관한 미국과 북한 사이의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다음 각 항과 같이 결정한다.
가. 북미 양국은 최단기간내에 한반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직접 대화에 나서고, 무력위협의 중단과 핵의 평화적 이용 원칙 준수를 위한 조치를 동시에 실행하라.
나. 북미 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불가침조약을 체결하고 상호 적대행위를 중지하라.
다. 북미 양국은 1953. 7. 27. 체결된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항구적인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관계를 완전히 정상화하라.

2. 본 법정은 미국에 대하여 다음각 항과 같이 결정한다.
가. 미국은 북한에 대한 일체의 핵위협을 중지하고, 핵확산방지조약상 핵보유국에 부과된 비보유국을 핵으로 위협하지 않을 의무를 이행하라.
나. 미국은 주변국과 국제기구를 동원한 북한에 대한 고립 봉쇄 정책을 철회하라.

3. 본 법정은 북한에 대하여 다음각 항과 같이 결정한다.
가. 북한은 미국의 핵위협이 소멸하는 것과 동시에 제네바 기본합의의 원칙에 따라 핵활동을 동결하고 평화적 핵이용 검증절차를 실시하라.
나. 북한은 국제적인 핵확산방지체제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라.

1. 4. 본 법정은 한국 정부에 대하여 아래의 사항을 권고한다.
2. 가. 한국 정부는 한반도에서 온 겨레의 생존권을 유린하는 전쟁은 용납될 수 없음을 미국과 주변국 및 국제기구에 강력히 표명하라.
3. 나. 한국 정부는 미국과 주변국에 북한에 대한 고립 봉쇄 정책 철회를 요구하라.
4. 다. 한국 정부는 북한과 민족 내부적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고, 외부환경에 구애됨 없이 남북관계를 꾸준히 발전시키라.
5.
6. 5. 본 법정은 국제사회와 국제기구에 대하여 아래의 사항을 권고한다.
7. 가. 주변국은 한반도의 핵전쟁 위기를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악용하지 말고, 북미 양국 사이의 분쟁해결을 위한 공정한 중재자로서 역할을 다하라.
8. 나. 국제원자력기구와 국제연합은 북한의 평화적 핵 연구와 사용을 보장하고 핵확산금지조약을 공정하게 적용하라.

이 유

I. 법정의 관할과 중재결정의 근거

1. 본 법정은 2003. 5. 27. 발기되고 7. . 발족한 "한반

도 핵문제에 대한 국제민간법정 추진위원회"에 의하여 제정된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국제민간법정 헌장" 제1조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2. 본 법정은 헌장 제2조 "법정은 미국의 대북 봉쇄 위협 및 북한의 핵개발에 관하여 북한과 미국 사이에 일어난 법률적 분쟁에 대하여 중재할 수 있다"에 의하여 한반도 핵문제에 관한 북미 양국간의 법률적 분쟁에 대하여 중재재판관할권을 가진다.

3. 본 법정은 김애영, 박석률 외 인의 한반도 핵문제에 관한 중재신청에 의하여 개정하여, 본 법정이 북미 양국의 입장을 대변하기에 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선정한 대리인들로부터 양 당사국의 입장을 듣고, 대리인들이 제출한 서증과 영상물을 검토하고 증인 김민웅, 김승국, 이시우, 강정구, 정일용의 증언을 청취하였다.

4. 본 법정은 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와 시민중재인단의 평의 결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도출된 중재의견을 참고하였다.

II. 양 당사국의 주장

9. 5.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후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철수하고 북한을 핵무기로 위협한 바 없는데, 북한은 사실상의 테러지원국으로 미국의 안전에 위협적인 존재로서,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사찰을 받아들이지 않아 핵확산금지조약과 제네바 기본합의에 위반하였고, 핵확산금지조약 체제를 유지하려는 미국의 정당한 노력에 대하여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및 핵개발 진행을 선언하고 핵포기 대신 체제보장과 보상을 요구하여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위반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10.

11. 6. 북한은 핵보유국인 미국이 비보유국인 북한을 핵으로 위협하여 핵확산금지조약을 위반하고, 핵위협중단과 중유제공 및 경수로건설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네바 기본합의에 위반하였으며, 나아가 북한의 평화적 핵활동과 자위적 핵무기 보유시도를 빌미삼아 국제원자력기구를 통한 부당한 간섭과 무력위협으로 북한을 굴복 말살시키려고 하여 국제연합 헌장상의 주권존중의 원칙과 무력불사용의 원칙을 위반하고, 주변국과 국제기구까지 동원한 고립봉쇄정책으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위반하여 분쟁을 격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12.

13.

14. III. 인정되는 사실과 판단

15.

16. 7. 위에 든 증거와 증언 및 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미국은 북한을 목표로 한 핵전쟁을 계획하고 북한을 핵무기로 위협하고 있는바, 이는 핵보유국이 핵비보유국을 핵으로 위협하지 아니한다는 핵확산금지조약과 제네바 기본합의에 위반한 것이며, 유사시 남북 온 겨레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남북을 공멸시킬 위험이 있다.

알립니다

한상권교수님의 현대사 강좌

가까운 과거사를 앎으로서
오늘을 알고,
미래를 참되게 개척하고자 합니다.

일 시 : 9월 7일 일요일 오후 2시
장 소 : 낙성대 만남의 집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 ⑧번출구)
문 의 : 송창학(016-235-3726), 888-4470

나의 인생 유람기

정형근 양심수후원회 회원

찌는 듯한 무더위는 이곳 빛고을도 장난이 아니네요. 지금은 수술을 잘 받고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지난 2년이 저에게는 정말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2001년 9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내려 왔던 고향이었는데 수술을 계속해도 낫지 않는 손은 호남 최대의 전남대병원에서도 실패하였고, 마지막으로 간 기독병원에서 들은 소식은 워낙 심각해서 손을 절단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절망감이 심했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제 주위에 저를 걱정해주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있어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많은 수술과 재활훈련을 받아 비록 손의 기능은 잃었지만 상처도 다 나았고 지금은 열심히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방에 있으니 한가지 안 좋은 점은 문화적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패 〈우리나라〉도 서울에서는 자주 봤었는데 여기서는 노래 테이프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회 활동도 계속 하고 싶고 민중가요도 부르고 싶어 〈겨레사랑 청년회 노래사랑〉에 작년 여름 가입하여 지역통일한마당 행사에 초청공연도 가고 새로운 노래도 배우고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하니 마음도 덩달아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요즘도 각 지역과 동에서 통일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들만의 행사로 진행되어 그것이 늘 서운하고 가슴 아팠는데, 동네주민들과 여중생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야기하고 전쟁광 미국과 부시에 대해 이야기하고 우리 민족끼리 우리 힘으로 통일하자는 이야기도 당당히 말하고 우리의 통일운동이 분명 한 단계 발전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는 우리의 8월 통일행사가 공중파방송에서 생중계 되어 온 국민이 참여하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은 휴직상태이지만 8개월 동안 했던 택시노동자로의 삶도 나에게는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타는 택시는 일상 생활들의 한 모습입니다. 내 고향이지만 처음에는 지리를 잘 몰라 애를 먹었습니다. 저녁에는 술 먹은 몇몇 사람들로부터 영문도 모른 채 욕을 실컷 얻어먹기도 하고 때로는 손도 불편한데 열심히 산다고 어르신들한테 칭찬 받는 기분 좋은 하루도 많이 있었습니다.

운전하면서도 손님들과 나누는 이야기들은 정치이야기부터 개인의 가정사까지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선거 때만 되면 정치인들이 택시와 기사들을 이용하는가 봅니다. 지난 대선 때는 거의 선거 이야기였지요. 재미있는 건 제 차에 타신 대부분의 광주시민들 중 이회창과 한나라당을 지지한다는 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한번은 제가 이회창을 풍자하는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어'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운전을 하는데 승객인 노부부께서 이 노래를 듣고 회창인지 알아들으시고는 크게 웃으시면서 가사 구구절절 틀린 말이 없다 하시며 제목을 물어 보시더군요. 정말 뿌듯했습니다. 선거 당일에는 노무현에게 한 표라도 더 가기 위해 투표하러 간다고 하면 요금도 안 받고 꼭 노무현을 찍으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뭐 하러 그런 짓을 했는지 제 손을 보면서 후회가 됩니다. 차라리 권영길 님을 찍으라 할걸 그랬네요…

요즘 살기가 어렵긴 어렵나봐요. 택시는 경기가 어떠하냐고 자주 물어왔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기는 장사를 하는데 무척 힘들다고 우시는 분도 계셨고 또 어떤 분은 가족만 아니면 자살하고 싶다는 아버님도 계셨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포장마차에서 술 한잔하면서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힘내시고 용기를 가지시라는 말 밖에 할 수 없어 너무 답답했습니다. 우리 민중들이 열심히 땀흘려 일한 만큼 대접받는 사회, 모두가 아무런 걱정 없이 잘사는 사회가 빨리 오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또 한가지 뿌듯했던 일은 작년 우리의 이쁜 동생들이 미군의 장갑차에 의해 죽고 그 가해자들이 뻔뻔하게 무죄판결을 받았을 때 이 지역에서 제작한 유인물을 차에 두고 시민들에게 하나씩 나누어주었는데 그 반응이 정말 폭발적이었습니다.

젊은 학생부터 나이 드신 할아버지까지 한결같이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과 불평등한 소파에 대해서도 한분한분이 자신들의 의견을 이야기 해주시고 마지막으로는 모두 미국을 욕하더군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유인물 드리는 게 조금은 걱정이 되었는데 오히려 그분들도 6.25때 우리나라를 도와준 건 인정하지만 이번 무죄판결은 우리가 힘이 없어 미국이 깔보는 거라며 우리 젊은 사람들이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옛날에는 미국을 반대하면 한나라당과 조폭언론이 선두에 서서 우리들을 빨갱이라고 매도했는데 지금은 일반 시민들도 노골적으로 미국을 반대하니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이 오히려 반미감정을 조장하니까 미국에 감사해야 하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지금은 택시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알아보고 있지만 한번쯤 해볼 만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94년에 후원회에 들어왔으니 저도 중고회원이 되었네요. 그때는 양심수가 200명이 넘었고 장기수선생님들도 전국의 교도소에 무지 많이 계셨는데, 그래서 회장님과 후원회 간사님이 대부분의 일을 해야했기 때문에 조금은 답답했는데, 지금은 양심수도 많이 줄어들고 선생님들도 신념의 고향 북으로 가시고 어느 정도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개선이 된 것 같아 뿌듯합니다.

비록 저는 광주에 있지만 서울에서의 생활을 잊지 못합니다. 좋은 분들을 만나서 좋았고 경찰서에 면회하러 가서 경찰에 냉대 받고 어린 전경들한테 맞을 때는 눈물도 났었고 양심수들 면회하러 가서는 많은 것을 배우고 왔었습니다. 지금은 많은 회원 분들이 일을 분담해서 우리 회장님과 간사 분의 일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어서 좋고, 신선한 많은 젊은 친구들이 들어와서 우리 후원회가 더욱더 활성화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후원회에서 배웠던 '사람을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 으로 청년회 활동도 하고 일도 하면서 이곳 빛고을 광주에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알립니다

2003 회원여름수련회

민가협과 양심수후원회가 함께하는 '2003 회원 여름수련회'가 아래와 같이 있게 될 것입니다. 양심수석방,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에 애쓰셨던 어머님들 회원여러분 말고도 출소선생님과 4·30, 8·15석방 양심수들도 함께 할 것입니다. 많은 회원들께서 함께 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 언 제 : 2003.8.30~31(1박 2일)
- 어디로 : 경기도 가평군 대성리
  (031)585-6630, 011-9794-9114)
  대성리 국민관광 단지 기차길 산장(대성리역에서 5분거리)
- 모이는 시간 : 2003.8.30 늦은 3시 20분
  장 소 : 청량리역광장 시계탑 아래
  (시간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준비물 : 회비 40,000원, 세면,필기도구,
  긴팔옷, 랜턴 등

- 문의사항은 888-4470, 송창학 기획간사 : 016-235-3726, 김미성 간사 019-603-1541, 노혁 회원관리팀 019-323-059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은 인터넷 방송국 '민중의 소리' 기자로 일하는 김도균 회원님께서 추천해주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2003년 7월

01 양심후원회 운영위원이며 성공회 나눔의 집 대표이신 송경용 신부님이 봉천9동에 새로 지은 나눔의 집 〈함께사는 세상〉의 문을 열었습니다. 사회선교센터이기도한 〈함께 사는 세상〉은 5층 건물로 장애인과 가정을 잃은 청소년들, 그외 소외된 사람들의 보금자리가 될 것입니다. 개소식에는 각계각층 후원자들이 모인 가운데 정철범 주교님(대한성공회 서울교구장)의 인사말과 김성수 성고회대학총장, 권오헌 양심수후원회장 외 여러분 축사, 개소식, 테이프컷팅, 집구경, 다과회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철도파업과 관련 건설교통부는 적극가담자 630명에 대한 직위해제와 함께 미복귀자 8000여명에 대해 단계적으로 징계할 것이라고 당국자가 밝힘.
- 제2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가 출범하다. 상임위원 2명과 비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된 2기 진상규명위원회는 1년 동안 1기에서 진상규명 불능이나 기각 결정이 내려진 63건에 대한 재조사를 하게 된다.

02 민주화 운동기념사업회 강당에서 여중생범대위와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실천 공동으로 반전평화운동의 평가와 전망 주제로 토론회 열림.

- 여의도 금융감독위원회 앞에서 1,000 여명의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모인 가운데 '금속노동자 4대 요구 쟁취 중앙교섭 쟁취를 위한 결의 대회' 열리다. 대회에서는 주 40일 노동 즉각실시 근골격계 직업병 대책마련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정규직화 최저임금 현실화를 임단협에서 공동요구 할 것 등 결의하다. 한편 민주노총소속 금속산업연맹과 화학섬유연맹의 100여개 사업장 9만여 노조원이 이날 오후 1시부터 4시간동안 시한부 파업을 하다.

03 과천종합청사(법무부)앞에서 여중생범대위 주최로 '여중생범대위 탄압중단을 위한 법무부장관 면담촉구 기자회견' 을 열다. 홍근수 대표의 취지 설명 범대위 탄압경과보고, 서경원 대표의 규탄발언, 노수희 공동의장의 기자회견문 낭독, 권오헌 대표의 면담촉구서한 낭독 등이 있었음. 마치고 법무부 민원실에서 면담요청서 접수시킴.

- 민가협 478회 목요집회 여는 말 -임기란 전상임 의장, 네이스와 전교조탄압사례발표-전교조서울시지부장. 대북송금특검 부당성 규탄- 권오헌 공동의장, 여중생범대위 전현욱 구속 사례 등.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강당에서 민가협, 민변, 범민련 후원회, 통일연대 한총련 대책위등 공동으로 '해외 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구국보장을 위한 워크샵' 이 있었음. 홍근수 목사의 인사말, 한통련대책위 이기욱 집행위원장의 활동상창 사례 임종인 변호사의 앞으로 활동 등 발표.
- 단국대학의 한총련 대의원으로 수배를 당하고 있는 김선아 학생이 할머님이 돌아가셔 학생들과 수배자 가족 한총련 대책위 권오헌 대표 등의 보호를 받으며 단국대에서 봉천동 보라매병원 장례식장까지 문상 다녀오다.
-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참여연대, 녹색연합,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평화네트워크 등 여러 단체가 공동으로 '국방비 증액 및 MD체제 편입반대,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을 열다.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민화협 주최로 '특검 이후의 남북관계와 국민통합방향' 이란 주제로 남북공동성명 발표 31주년 기념 긴급토론회 열다. 이장희 외대교수, 김인화 변호사, 송영길의원, 류길재 경남대교수, 유호열 고려대교수 등이 토론에 나섬.

04 서초동 법원 앞에서 통일연대 주최로 '대북송금 관련 사법 판결 반대' 기자회견을 열다. 민경우 사무처장 사회로 나창순 범남본의장의 여는 말, 사법판결 반대연설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대표, 기자회견문 낭독에 노수희 전국연합 공동의장 순서로 이어졌음.

- 서울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김상균 부장판사) 심리로 이른바 대북송금 특검 재판이 열림,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장관 등 구속 기소된 3명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장 등 5명의 불구속 기소된 모두 8명에 대한 특검팀의 직접심문 변호인의 반대심문 일부가 진행되었음. 대북송금 3억 5천만 달러와 정부지원의 1억 달러 송금(현대에서 대신송금)에 관해서는 대체적으로 인정. 그러나 이는 민족의 화해와 협력 차원에서 그리고 경제협력차원의 선수금으로 지불했다고 답변.
- 김미성간사의 작은아버님께서 세상을 떠나시어 신월동 빈소에 문상 다녀왔습니다. 삼가명복을 빕니다. 송창학 간사 권오헌이 함께 문상을 하고 김미성 간사와 함께 집행부 주례모임을 가졌습니다. 회원

2003년 7월

워크샵 대전에서의 양심수후원회 전국모임 토론문제, 정치수배자, 도보순례자 지원문제 등 논의.

-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정전 50주년 한반도 평화대회 준비위원회 결성 기자회견'을 열다. 76개 사회단체로 구성되는 조직위원회는 7월을 평화의 달로 선포하고 범국민적 국제적 반전평화 운동과 행사를 진행하기로 하다.
- 홍사단 강당에서 통일맞이민족회의, 문화일보 등이 함께하는 정전협정 50주년을 평화 50주년으로 2003년 휴전선 평화통일 대행진 예비모임을 갖다.
- 송창학간사, 변의숙회원 대전에서 있은 양심수후원회 전국모임 다녀오다.

05 4일~6일사이 금강산에서 장정남 조선대학생체육협회 부위원장 등과 실무접촉을 벌이고 돌아온 하진규 유니버시아드 사무총장 겸 협상단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 여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북측선수 200명과 응원단 310명 기자단 19명 등 529명이 직항로로 온다고 발표.

- 양심수후원회 시사모임이 주관하는 한상권교수(운영위원)의 현대사강좌 '제14강 한국전쟁(2) 민간인 학살' 강의하다.

06 평택 팽성읍 대추분교터에서 '주한 미군 평택이전과 미군기지 확장을 반대하는 지역주민 대책위원회 결성하다. 결성식에는 지역 주민과 농활에 나선 대학생 등 400여명이 함께하여 용산 미군기지, 미2사단의 평택이전 계획 철회 미군기지(캠프,첨프리)로 인한 주민피해조사와 보상 즉각적인 SOFA, 개정,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문 택하다.

07 연세대 정문 앞에서 한총련관련 정치수배해제를 위한모임과 정치수배자가족모임은 '수배자들의 노상노숙 감옥시위'를 벌이는 기자회견을 열다. 유영업 수배자모임대표의 입장발표, 연세대 부총학생회장 김선태현과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회장의 한총련 이적규정철회와 정치수배해제 촉구 발언 등이 있은 다음 유영업, 이산라 두 사람 노상노숙감옥시위에 들어가다.

- 법무부는 정책위원회를 열고 공안·노동법위반 사건 관련자들이 가석방할 때 강요했던 준법 서약제도를 폐지키로 결정.

08 청와대 입구 청운동 사무소 앞에서 50여 사회단체 대표들은 철도당국이 파업을 끝내고 복귀한 철도조합원들에게 무차별 대량징계를 내린데 대해 '대화거부 강제진압, 무차별 대량징계에 따른 철도사태 장기화를 우려하는 각계대표 기자회견을 열다. 취지 말 오종렬, 규탄발언 홍근수, 이향원 등.

- 충정로 농협중앙회 본사 앞에서 전국농민회 총연맹 등 농민단체로 이루어진 전국농민연대가 주최하는 '농협개혁과 한·칠레 FTA 국회비준 저지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다. 송남수 연대회의 대표와 정현찬 농민회 총연맹 의장의 결의 발언이 있었음.

09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에서 종교인 평화회의, 전국목정평협의회, 통일연대, 민주노총, 전농, 한청, 평화통일, 시민연대, 한겨레, 통일문화재단 등 10여개 단체들은 가칭 '통일쌀 나누기 온겨레 운동본부' 건설을 위한 제 시민사회단체 간담회를 열고 명칭, 사업목표, 대북지원경로, 사업내용 등 포괄적으로 논의하다.

- 제11차 남북장관급 회담(9~12일)에 참가할 북측대표단이 김령성 내각 책임참사를 단장으로 한 32명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 하다. 대표단은 도착성명에서 '핵전쟁의 검은 구름이 조선반도에 밀려온다며 지금이야 말로 북과남 모두 급변하는 현실을 똑바로 보고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른 민족공조가 필요하다'고 역설.

10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통일연대 주최로 '6·15 공동선언 고수이행과 친미-반통일 세력 척결을 위한 목요한마당과 6·15 선언 훼손하는 새특검법 결사저지 및 친미 반통일 한나라당 규탄대회를 열다.

- 탑골공원 앞에서 민가협 479회 목요집회를 열다. 여는 말 조순덕 상임의장, 정치수배해제 이산라군 어머니 김낙희씨, 김현정 경기도 노동조합 위원장 구속사례-홍희석 사무처장, 재소자인권문제 -임기란 전상임의장 발언 등으로 진행.
- 연세대 정치수배자 감옥시위현장과 양심수 이석기 석방대책위 도보순례단 격려 방문하고 각기 20만원씩 지원하다.(6월회계분)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평화네트워크가 주최한 '한·미 연합방위 체제와 MD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로 토론회 열다. 토론회에서 미조지타운대 국가안보 석사과정인 전세훈씨는 한·미연합 방위 체

제의 문제점이란 발제에서 '한국군 총수권은 대통령이 아니라 사실상 한 · 미 연합사령관이 쥐고 있다' 고 부당성 강조.

11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101호 법정에서 한총련대의원으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병만 경희대생 선고공판에서 징역6월에 집해유예 1년을 선고.

- 전국연합회의실에서 23차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국민연대 상임대표자회의 열다. 권오헌 상임공동대표의 사회로 민주화운동 명예 회복법 1차 개정의건,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 황원래 사무국장 임명 부결에 대한 대응문제 등 논의를 마치고 대표단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로 한상범 위원장을 면담하고 사무국장 임명부결에 대한 항의와 그 해명을 요구하다.
- 교보문고앞 인도에 세워졌던 두 여중생 1주기 추모제때 세운 촛불기념비가 두동강 나는 사고가 있어 여중생 범대위 주최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종로구청과 서울시청 경찰당국에 수사촉구를 하다.
- '후원회 소식' 141호 최종교정 기획사에 넘기다.(이승미, 김미성)

12 용산 미8군 정문 앞에서 통일연대 주최로 '6 · 15 공동선언 고수이행.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철회, 북미불가침 조약체결, 민족자주 결의대회' 를 소속단체 대표와 성원 청년학생등 300여명이 모인가 운데 열림. 김건수 사무처장 사회로 한상렬 상임대표의 대회사 이천재 전국순례단장의 결의 발언, 박재익 서총련의장과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대표의 정치연설. 결의문낭독 등이 있었음. 이어 같은 장소에서 한총련 등 청년, 학생들은 '한반도 자주와 평화를 위한 한총련 반미반전 수도권 집중 실천단 발족식 및 총력 투쟁 선포식' 을 갖고 상징의식으로 성조기를 불태우다.

- 탑골공원 앞에서 서총련, 전국학생연대회의, 다함께,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등 소속단체 학생 300여명이 모여 '미국의 한반도 전쟁 위협과 적대정책 중단, 이라크 점령 즉각 중단. 미사일 방어체제(MD)계획 즉각 포기 할 것을 촉구 하는 반전집회' 를 열다.
- 연세대 정문 앞에서 정치수배모임과 양심수 이석기 석방 대책위 양심수후원회 공동 주최로 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수전원석방, 정치수배해제 토요캠페인을 벌이다. 송창학 양심수후원회 간사, 사회로 유영업, 정치수배자 모임대표, 최지호 도보순례단 단장 권오헌 대표 등 각기 정치수배해제, 이석기씨를 비롯한 양심수전원석방,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발언을 하다. 노래와 춤 결의 구호 등으로 1시간동안 진행하다.
-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여중생범대위 주최로 7.12일 체포영장 철회 전현욱 석방, 촛불 기념탑 훼손 진상규명 229차 광화문 촛불행진 진행되다.
- 경남대 2002년 부총학생회장 이었던 소배경 학생과 건국대학의 김종권, 법대학생회장 김용찬 학생이 보안수사대에 강제연행 되다.
-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1차 남북장관급 회담이 6개항의 공동보도문을 합의 발표 하다. 핵문제의 적절한 대화의 방법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추석에 8차 이산가족 상봉 8.15 민간 공동행사 지원. 8월 26일 6차 경제협력 추지위원회 개최(서울) 10월 14~17일 12차 장관급회담(평양) 등을 합의하다. 북측대표단은 이날 서울을 떠나 평양으로.

14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 주최로 '민주화운동 명예회복법을 7월 국회에서 올바르게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을 열다. 강민조 유가협회장의 여는 말, 박희영 사무처장의 경과보고 오종렬 상임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 해직전교조, 해직언론인, 전민상련 등 부문대표 발언에 이어 권오헌 대표의 올바른 명예회복법 개정의 정치발언이 있었음.

- 한총련 합법화와 정치수배해제를 촉구하는 법무부장관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법무부와 청와대 인터넷 언론 등에 보내다.(권오헌 양심수후원회 회장명의로)

15 과천 정부종합청사(법무부)앞에서 '양심수 이석기 석방대책위원회 주최로 양심수 이석기 석방촉구와 1만인 탄원서 법무부전달 기자회견을 열다. 권오헌 대표의 취지 말. 하영옥씨의 석방촉구 발언, 오종렬 의장의 기자회견문 낭독, 이석기씨 어머님의 인사말 등으로 진행. 마치고 1만3천여 석방탄원서를 법무부에 전달하려 했으나 법무당국과 경찰의 제지로 무산됨.

- 서울 고등법원 합의심리로 10기 한총련 대변인이며 의장 권한대행이었던 윤경회 홍익대 2002년 총학생

2003년 7월

회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있었음. 이날은 변호인 측에서 증인 신청만 하고 재판부에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났음. 마치고 한총련 학생들 법원계단에서 정리 모임을 갖고 권오헌 격려말 하다.

- 민주화 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 대표들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를 방분 한상범 위원장과 사무국장 임명 부결 후유증에 대한 대책논의 민간조사단 오늘부터 업무에 복귀하도록 대표단 권고하다. (강민조, 권오헌, 허영춘, 한충목, 박영희외)
-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억세게 비가 오는 가운데 여중생 범대위 주최로 양심수 이석기 서방촉구, 촛불대행진 벌이다(233회) 하영옥, 서경원, 권오헌 등 석방촉구발언과 노래와 춤 등 문화공연.
- 향린교회에서 4월혁명회 주최 '정전협정 50주년과 한반도 정세' 주제로 김남식 민족21 고문 강연회가 열렸음.
- 명동 우리은행 앞에서 '우리 민족끼리 자주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반미 · 반전 통일연대 중앙순례단 출정식과 출발행사가 있었음. 1차 순례단은 7.15-29일까지 전국을 돌며 6 · 15 공동선언이행과 민족공조를 선전홍보하며 8.15 민족통일 행사에 10만 명 참여 목표의 조직적 준비를 호소 할 것임.
- 경찰당국은 교육행정 정보시스템(NEIS)도입에 반대해 집단연가 투쟁을 벌인 혐의 등으로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다.
-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141호 소식지 발송작업이 있었습니다. 문상봉, 김영식 선생님, 변의숙, 안나미, 김숙희, 이봉주, 이일규, 김미성 함께.

16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전태일 열사 청계천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결성식과 기자회견이 열리다. 남상헌 공동대표의 인사말, 민종덕 집행위원장의 경과보고에 이어 조직결성, 명단발표와 승인, 사업내용승인, 이소선 여사의 인사말이 있었음. 이어 기자회견에서는 고문 박용길, 박정기외 여러분 공동대표 단병호, 남상헌, 권오헌, 이윤하, 최열 등과 40여 추진위원이 함께 했음.

- 양심수후원회회원 워크샵이 봉천동 나눔의 집에서 '신나는 활동, 잔잔한 변화, 멋진 회원' 이란 부제를 달고 ①북핵과 한반도 정세 ②시민단체의 운영 ③활동과 생활 등으로 나누어 진행되다.(송창학, 주경임, 변의숙, 이승미, 김미성, 김민정, 김숙희, 이진, 이용준, 이득형, 이일규, 심주이, 권오헌 함께)
- 평택 K-55기지 앞에서 미군기지 없는 나라 만들기 경기도 운동본부, 통일연대,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한총련 미군기지 확장 반대 평택 대책위 등이 '미군기지 평택 확장 이전과 미국의 한반도 전쟁위협을 반대하는 제 시민사회 종교단체 대표자 기자회견'을 열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 과 관련해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 진상조사와 명예회복을 할 수 있게 통합특별법 제정을 권고하다.

17 '민중의 소리' 와 한총련 합법화와 정치수배해제에 대한 영상 인터뷰 하다. (권오헌 대표)

-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지법 형사 13단독 오준근 판사는 '향후 출석하지 않을 수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궁색한 변명, 위원장을 정식 구속되다.

18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정전 50주년 한반도 평화대회 조직위원회 주최,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국제민간 법정 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추진위원회 간담회와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국제 민간법정 증인 출두요구와 공개질의서 발표기자회견' 을 열다. 한충목 집행위원장 사회로 홍근수 추진위원의 법정소개, 조희연 교수의 증인 출두요구서 공개(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 토마스 허버트 주한 미국대사 리언 라포트 주한 미군사령관 등) 이어 권오헌 추진위원의 조지부시 미합중국 대통령, 도널드 럼스펄드 국방장관, 콜린파월 국부부장관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발표하다.

- 느티나무 카페에서 미국평화운동가인 Free Speech Radio News 기자들과 한반도 평화 등에 관한 인터뷰를 하다.(권오헌) 프레시안 손봉석 기자의 통역으로 한반도 핵문제 민간법정에서 밝히려는 내용을 비롯하여 한반도 뿐 아니라 온 세계의 평화를 깨고 있는 미국의 패권주의 제국주의에 대해 이야기 하다.
-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양심수후원회 제15차년도 제3차 운영위원회를 열다. 활동보고, 재정보고에 이어 회원여름수련회 8.15 광복절 양심수석방 정치수배해제 투쟁, 토요캠페인 등 논의.

19 연세대 정문 앞에서 정치수배자 모임과 양심수 이

석기 석방대책위 양심수후원회가 함께하는 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수석방 정치수배해제를 위한 토요캠페인을 벌임. 양심수후원회에서 김미성, 변의숙, 이승미, 김숙희, 이용준, 심주이 함께.

19~20 옴시롱 감시롱 제36차 정기 기행이 '인제 진동계곡의 원시상태를 찾아서' 라는 주제로 19-20일 사이에 있었음. 모두 50여 명이 함께한 이번 생태기행에서는 기린면의 방동약수터, 방대천, 진동계곡, 곰배령으로 향한 강선계곡 등을 답사하며 희귀식물과 야생화 등 남녘에서는 울릉도와 점봉산 밖에 없는 극지 식물들을 관찰할 수 있었음.(답사기행 참조)

20 평택 k-55 미군기지 정문에서 미군기지 없는 나라 만들기 경기도 운동본부 등 많은 시민사회단체 성원과 청년학생 등 500여명이 모여 '미군기지 평택확장 이전저지와 한반도 전쟁위협 규탄 결의 대회'를 열다.

21 연세대 학생회관 3층 푸른샘에서 한총련관련 정치수배모임과 수배자가족 11기 한총련 지도부 민가협, 범민련 등 사회단체 성원들 100여명이 함께하며 '한총련 정치수배자 가족 상경 투쟁' 기자회견을 열다. 유영업 수배자 대표의 21-23일까지 일정발표 한총련 11기 정재욱 의장과 한총련 합법화 범사회인 대책위 강위원 국장의 한총련 합법화와 정치수배해제 촉구발언 등이 있었음. 가족들 소복에 포승줄을 매고 플래카드를 들고 교문까지 행진. 전세 버스에 나누어 타고 과천종합청사(법무부)에 도착-강위원집행국장의 사회로 기자회견을 열다. 라창순 범남본의장의 인사말, 방영숙어머니의 기자회견문 낭독. 이어 라창순, 방영숙, 조순덕, 권오헌 등 대표단 가족들의 법무부장관에 보내는 공개서한 법무부 민원실에 접수시킴 다시 집회장소에서 공개서한 전달사항과 한총련 이적규정 정치수배해제에 대한 권오헌 대표의 촉구발언 등으로 집회 마침.

- 독립영화 푸른영상 사무실에서 비전향장기수의 출소, 생활, 송환 등을 다룬 김동원감독의 작품감상 이정규 운영위원, 소수영, 여혜정, 권오헌 함께하다.
- 김근태, 추미애, 서상섭, 남경필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38명과 민가협, 환경연합 등 90여 시민사회단체는 '7.27일을 평화의 날로 제정해 냉전과 대결의 시대에서 평화의 시대로 나아가자' 며 7.27 정전협정 체결일을 평화의 날로 제정할 것 촉구.

22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평통사 등 주관으로 '한 · 미 동맹 3차 회의 자주적 자세 촉구와 MD 무기인 PAC-3 도입계획 철회 촉구 집회를 열다. 마치고 국방부 민원실에 항의서한 전달.

- 정치수배 가족들과 한총련 학생들 100여명은 경찰청 앞에서 11기 한총련 이적규정 적용과 11기 대의원 소환방침에 항의하는 규탄집회를 열고 가족대표단과 강위원 집행국장 등 항의서한 경찰청에 전달.
- 청와대 앞 청운동 사무소 앞에서 정치수배가족들과 한총련 학생들 정치수배해제 촉구 농성과 항의집회를 열다. 경찰의 제지에 몸싸움을 하고 마지막으로 강위원국장이 정치연설을 하다. 마치고 연세대로 돌아와 상경 2일째 투쟁을 평가하고 정리하다.
-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한총련과 전국학생연대 회의,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공동으로 주한미국대사와 주한미군사령관에 대한 공개면담을 요청하고 기자회견을 열다. 학생들은 미국의 한반도 전쟁책동을 반대하고 주한미군철수를 촉구하는 요청서를 미대사관에 전달하려했으나 대사관측이 접수를 거부하여 문틈에 끼워 넣고 오다.
- 을지로 훈련원공원에서 민주노총주최로 '주5일제 빙자한 근로기준법 개악저지 결의 대회'를 열다.

2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층 강당에서 민가협, 민변, 양심수후원회등 47개 시민, 인권, 노동, 사회단체 공동으로 한총련 수배해제에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다.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대표의 사회로 최병모 민변회장, 정광훈 민중연대 상임대표의 촉구발언, 수배자 이산라씨 어머니 김낙희님의 사례발표, 채은아 민가협 총무의 수배자 인권실태조사 발표, 정현백 여성단체 연합 대표의 공동성명서 낭독 등이 있었음.

- 연세대 노상노숙 감옥시위현장 앞에서 통일연대와 국보법폐지 국민연대 공동으로 양심수석방 정치수배해제, 국가보안법 폐지 결의대회를 열다. 통일연대 김건수 사무국장 사회로 권오헌 한총련 합법화 범사회인 대책위 상임공동대표의 대회사, 범남본 라창순 의장, 전국연합 오종렬 의장의 연대사, 한총련 학생들의 노래공연 최창우 국보법 폐지 시민연대 대표의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발언, 한총련 11기

정재욱 의장과 유영업 수배자 대표의 결의 발언 등이 있었음.

- 양심수후원회 소식지 편집팀 모임이 인사동 만복정에서 있었습니다. 박정범, 이승미, 김미성 함께.

24 서울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남태 부장판사)는 박제민 2000년 경기대총학생회장이며 한총련 대변인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선고 공판에서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 3년을 서고.

- 서초동 법원 앞에서 권정기 일산보건소장과 이상이 제주대학 의대교수의 진보의련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에서 이적규정 판결에 따른 '진보의련 이적규정 규탄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1인 시위' 첫 번째 시위를 하다.(권오헌)
- 민가협 480회 목요집회 여는 말-이영우, 한총련 합법화와 정치수배 일괄해제하고 국가보안법 철폐하라-김낙희(이산라어머니), 방영숙(최원석 어머니), 한총련 정치수배자 인권실태조사 보고- 한지연 간사, 한총련합법화와 국가보안법 철폐 발언-임기란(전 상임의장)
- 민가협 운영위원회 동굴식당에서 열다. 활동보고, 재정보고에 이어 여름수련회 시기 장소문제, 민가협 사무실 옮기기(현재 모금액 1천4백만여원)8.15 광복절 양심수석방투쟁 양심수후원회 분담금 문제 사무국 간사 보충문제 등 논의
- 연세대 법대 건물 강의실에서 검찰에서 11기 한총련 이적성문제와 한총련 정치수배자 일부해제조치 발표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응방안 등 논의 수배자들과 11기 한총련 지도부 한총련 범사회인 대책위 범남본 전국연합, 민가협 등 함께. 이제까지 투쟁으로 얻은 성과에 대해서는 받아 안고 완전한 합법화 전원수배해제 투쟁을 계속하기로 하다.
- 용산 미8군 앞에서 통일연대 주최로 유엔사와 국방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방해 책동 규탄기장회견을 열다. 유엔사와 국방부는 경의선 임시도로를 이용해 '류경 정주영 체육관' 준공식 참관단 1천여명이 방북하겠다는 현대아산 계획을 불허한데 대해 규탄하고 항의서한 전달.
- 민변, 진보네트워크센타 문화연대 등 55개 단체로 구성된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대위는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어서 '인터넷 공안탄압을 중단하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 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다. 회견에서는 민주노총 자유게시판에 올려진 이북 관련, 게시물에 정부당국이 삭제를 요청하고 있어 게시인 신원파악에 대해 '시대착오적인 인터넷 검열이라며 반대입장 발표' 하다.

25 대검공안부는 한총련 관련 수배자 구속자에 대한 조치와 제11기 한총련에 대한 수사계획을 발표하다. 공안부는 한총련관련 수사 내사중인 152명 가운데 79명을 불구속수사하고(부총학생회장 단과대학 학생회장등) 의장단 지역총련의장 총학생회장 등 중앙위원 이상 핵심 주동자는 법에 따라 엄정처벌하고 자수하고 반성하면 불구속수사와 최대한 관용할 것이라 했고, 11기 한총련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적성에 변함이 없다면서 핵심주동자와 과격폭력 행위자는 계속 내사하고 확인시 엄정 처벌한다. 다만 대의원이라는 이유로만 일괄수배 조치는 하지 않겠다고 밝힘.

- 연세대 학생회관 푸른샘에서 대검공안부발표와 관련 정치수배자 모임과 가족, 11기 한총련 지도부등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치수배자 일괄전원 기소유예 조치 주장에 미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면서도 일부 전향적 조치로 그동안의 투쟁의 성과라고 평가하며 전원 불기소 할 것을 주장, 또한 한총련 정재욱의장은 특별성명을 발표, 완전합법화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대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배 조치하는 일은 없을 것이란 검찰태도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 앞으로 더욱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 등으로 완전합법화 투쟁을 할 것이라고 밝힘.
- 효창공원 백범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정전 50년 한반도 평화대회 조직위원회 주최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국제민간법정 추진위원회 주관으로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민간법정이 열리다. (중재 결정문등 - 특집참조)
- 한총련등 대학생 10명이 중구을지로 미극동공병단 영내에 들어가 시위를 벌이다. 학생들은 '미국은 한반도 전쟁계획을 중단하라' 는 등 구호를 외치고 성조기를 불태웠음. 경찰은 서울대 3년 김아무개등 학생 10여명과 부대 밖에 있었던 10명 등 20명을 강제연행하다.

26 연대 공과대학 지하 강당에서 통일연대 3차 대표자

회의를 열다. 보고안건에 이어 ①8.15 민족대회 참가자 배정원칙문제 ②준비위원 조직화와 관련한 주요 부문 및 각 지역 역할에 관한 건 ③ 8.15 대행진 행사를 위한 특별예산안에 대한 논의의건 ④기타 부족예산분 확충방안 마련 건을 논의안건으로 심의하다.

- 연세대학 법과대학 대강당에서 정전 50년 평화대회 조직위원회 주최 한국사회포럼 주관 한계레 통일문화재단 후원으로 '정전 50년 한반도를 동아시아의 평화의 중심으로' 주제로 한반도 평화포럼이 열리다. 개회식에 이어 리영희 교수의 기조연설, 제 1세션 '정전체제의 문제와 북핵위기-한반도 위기의 진보적 해결책과 평화 체제' 에서 부르스 커밍스 시카고대 교수의 발제 등이 있었음.
-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통일연대 주최로 '6 · 15 공동선언 고수 이행, 한반도 전쟁책동 미국규탄 전쟁반대 평화실현 결의 대회를 열다.
- 연세대 정문 앞에서 양심수후원회 정치수배모임, 양심수 이석기 석방대책위 공동으로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전원석방 정치수배해제 토요캠페인을 벌이다. 도보순례단 최지호 단장사회로 라창순 범남본의장의 격력말, 유영업, 하영옥, 권오헌 등 캠페인 연설과 서병받기 전단 나누어주기, 구호연창 노래와 춤 등 다양하게 진행, 이날 양심수후원회서 전단 1천장을 준비하다. 송창학, 주경임, 변의숙, 이승미, 김미성, 심주이, 김숙희, 이용준, 고선주, 고광희, 이진, 박지윤, 권오헌 등 함께.

27 임진각 광장 특설무대에서 정전50년 한반도 평화대회 조직위원회 주최로 사회단체성원과 청년학생 1천여 명이 모인가 운데 '정전 시대를 평화 시대로' 란 주제로 7.27한반도 평화대회가 열림. 사전행사 진혼굿 등에 이어 한충목 조직위원회 공동운영위원장 사회로 시민단체 대표로 박상중 참여연대 대표의 대회사, 한상렬, 정광훈, 단병호, 권영길 대표 등의 평화메세지 이라크 평화의 증인 수아드알카임의 연대사 고은 시인의 시낭송, 전상봉, 이김현숙 대표의 평화선언문 낭독이 있었음. 2부 정전 50년 평화기원 문화제에서는 공존과 평화 통일과 희망 등 주제로 길놀이 등 행사와 희망새, 우리나라 등 노래공연, DMZ 155마일 사진전, 반전평화 게릴라 엽서전, 평화지원, 만화전 등이 있었음. 양심수후원회에서도 깃발을 들고 참가했으며 모성룡, 송창학, 이용준, 이승미, 오영순, 박정철,변의숙, 김미성, 권오헌함께 했음.

- 인천대학 학생회관 식당에서 인천지역 정순덕 선생 후원회 주관 인천대 총학생회 등 후원으로 '정순덕 선생 70생신 축하 모임' 이 인천지역사회단체 통일광장 선생님들 양심수후원회 등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림. 이광우 사무국장 사회로 김영승 통일광장 선생님, 이강일 나사렛 한방병원 원장님,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대표의 생신축하 말씀이 있었고 축하케익 촛불끄기, 단체별 인사드림이 있었음. 양심수후원회에서는 안병길 목사님과 김호현, 모성룡 운영위원, 송창학, 변의숙, 이득형, 양계숙, 김미성, 김현애, 이용준, 권오헌 등이 함께 했고 생신선물로 금반지 한점과 축하 꽃바구니 보냈음.

28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정전 50년 한반도 평화대회 조직위원회 주최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국제 민간 법정추지위원회 주관으로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국제 민간 법정 결과발표 및 중재안 전달 기자회견을 열다. 여는 말 한상렬 사업추진경과보고. 심재환, 중재결정문 낭독에 주종환, 박석률씨 등이 했음. 마치고 한상렬, 주종환, 심재환 변호사 등 미대사관에 중재안을 전달하다.

- 보건복지부지정 서울관악자활후견기관 취업알선팀 서영리씨 등이 낙성대 '만남의 집' 에 와서 8월부터 자활센테에서 1주일에 2일 낙성대 '만남의 집' 에 봉사활동(식사준비등)을 하기로 하고 양심수후원회에서는 일당 12,500원을 지불하기로 합의하다.(월, 금요일) 수, 목요일은 이제까지 몇 년째 꾸준히 봉사하고 계신 김재원님께서 오시기로 했음.

29 청와대 앞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통일연대 주최로 북미불가침조약과 관련 노무현 대통령의 망언규탄 기자회견을 열다. 오종렬 전국연합의장의 취지 말, 권오헌 대표의 규탄연설, 한상렬 상임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음. 마치고 한상렬, 권오헌 대표 청와대 민원실에 접수시킴.

- 연세대 학생회관 3층 푸른샘에서 25일 대검공안부 발표에 따른 한총련 정치수배 관련 대응을 위한 사회단체 대표들이 간담회나 기자간담호가 잇달아 있었음. 범남본 전국연합 통일연대 민중연대 민가협, 민변, 양심수후원회 , 수배학생 가족모임 등이 함께

한 자리에서 한총련 수배문제 완전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기로 하고 추후 법무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등을 면담하고 더 이상 수배자 연행과 구속을 중지하고 모든 수배자의 실질적인 수배해제 조치를 촉구하기로 하다.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민변 등 사회단체 공동으로 '한 · 미 상호 방위조약에 관한 토론회'가 열림. 이철기 동국대 교수의 사회로 정세진 중앙대 교수 박기학 평통사 정책실장, 최철영 대구대 법대 교수, 강정구 동국대 교수 등이 발제와 토론이 있었음. 토론결과를 가칭 한 · 미 상근방위조약개정안을 발표하다.
-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평양교육 견학단 130명이 이북의 교육시설을 둘러보고 이남 학생의 수학여행 등 남북교육교류를 협의하기 위해 4발5일 일정으로 평양에 가다.

30 2003년 회원여름수련회 장소를 답사하여 대성리의 기찻길옆 산장으로 결정하다. 김호현, 권오헌 다녀오다. 날짜는 8월 30일, 31일로 하고 돌아올 때 마석 열사묘역을 참배하는 것으로 하다.

- 서울 서초동 서울지검 앞에서 전국학생연대회의 주최로 김용찬, 김종곤 학우 국가보안법위반 구속규탄 및 항의하는 집회를 열다. 학생들은 건국대 학생투쟁위원회를 이적단체로 규정 구속?수사하는데 항의하고 두학생의 즉각 석방, 국가보안법 철폐, 모든 양심수석방과 정치수배해제를 촉구하다. 마치고 학생대표들 김재욱 담당검사에게 항의서 전달.
- 김원웅 개혁당대표 서상섭 한나라당, 김성호, 송영길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22명은 한반도 평화 지키기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평화협정 체결 등을 촉구하다. 의원들은 ① 한반도에서 어떠한 전쟁도 반대하며 어떠한 국가도 한국국민과 한국정부의 동의 없이 일방적인 선제적 군사행동을 강행해서는 안될 것이고 ②북한 핵문제가 북미간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하며 국제 사회가 이를 외교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 하고 ③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일환으로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힘.

31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정봉진 부장판사)심리로 진보의련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첫 항소심 공판이 열리다. 권정기 일산보건소장과 이상이 제주대학 의대교수인 두사람은 진보의련 활동한 혐의로 1심에서 진보의련을 이적단체로 규정, 유죄선고를 받았음. 이보다 앞서 진보의련 대책위원회에서도 법원 앞에서 진보의련 이적규정 규탄 집회를 열었음.

- 민가협 481회 목요집회 양심적 병역거부자, 석방을 촉구하는 내용의 촉구발언과 포퍼먼스 등이 있었고 경기대 박제민 학생 출소인사, 진보의련 이상이 제주대교수의 사례발표 등이 있었음.
- 평통사등 사회단체 정원들은 서울반포 예산기획처 앞에서 국방부의 예산증액 요구에 기획예산처가 거부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바로 그 자리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가다.
- 명동성당들머리에서 청와대 도보순례단과 이석기 석방대책위공동 주최로 '양심수 이석기 모자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행사가 있었음. 이석기 석방대책위 성원과 청년학생들 민가협어머니들, 수배가족 등 500여명이 모였고, 범남본 라창순의장, 전국연합 오종렬, 노수희 의장, 한상렬 통일연대 상임대표 등 각 사회단체 대표들도 함께한 시와 노래의 밤은 김배곤 사회로 오신분 소개와 사전 문예공연에 이어 권오헌 대책위 대표의 대회사, 도보순례단의 영상물 상영과 활동보고, 춤과 노래가 있었고 동부총련의장의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정치수배해제 촉구 연설등이 있었음. 2부 본마당에서는 영상물 7일간의 귀휴 서기상, 윤미진, 이지상 등의 노래, 조현경의 시낭송 어머님의 편지낭독 등이 있었으며 마지막 촛불을 밝히고 양심수 이석기를 비롯한 전원석방, 정치수배해제 촉구를 기원했음.
- 양심수후원회 하재광회원이 모친상을 당했습니다. 오랜 투병을 하시다 성열한(헬레나)고인은 6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고 8월 2일 충북 음성 생극면에 모시기로 했습니다. 양심수후원회 에서는 송창학, 이창희, 박정범, 변의숙, 김숙희, 이승미 회원들과 갈현동 후원회에서는 오영순, 박정렬, 이진, 김래곤외 여러분과 권오헌이 문상다녀왔습니다. 삼가 명복을 빕니다.
- 양심수 81명에 영치금 1만원씩 보냄.
- '말' 4권과 '민족21' 5권을 양심수들에게 보냄.
- 정순덕 선생님 간병비 1,550,000원 보냄.